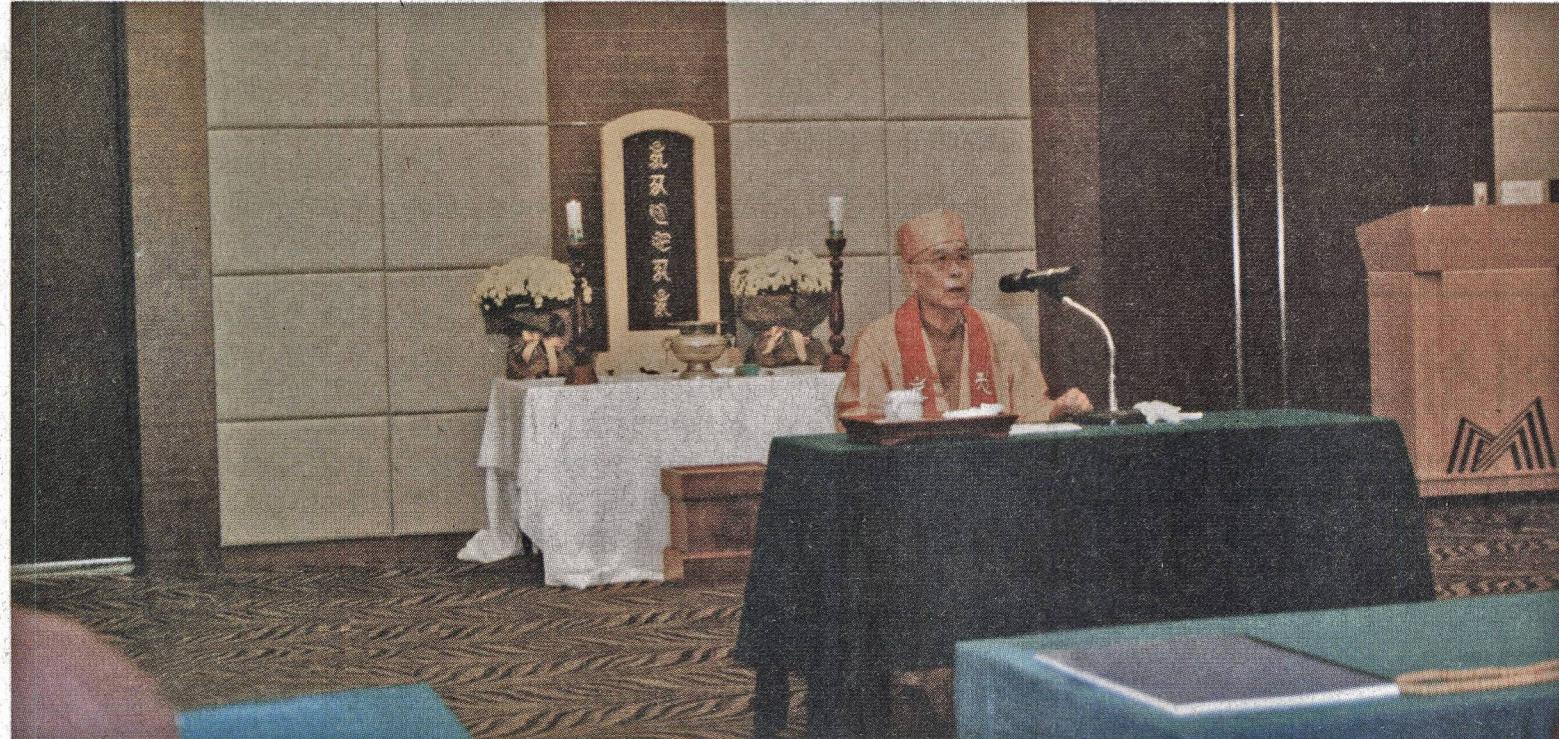


'새로운 종풍(宗風)운동'으로 총지종의 새 장을 열자

추계강공에서 스승들 새로운 다짐을 세워



▲ 불교총지종 효강 종령 예하의 추계강공회 개강법어.



▲ 불교총지종 스승들의 제76회 추계강공회 개강불사.

불교 총지종이 '뼈를 깎는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종풍(宗風)운동'의 깃발을 제 76회 추계강공회에서 높이 들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의 추계강공회가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강공회는 종단내에서 실시했던 강공을 외부에서 강공을 봄 행하여 가을이 달긴 환경과 사뭇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강공회는 효강 종령예하와 지성 통리원장, 인선 총무부

장, 시정 재정부장, 수현 교정부장, 우인 사회부장을 비롯하여 대원 중앙종의회의장, 지광 종의회부의장, 법상인 사감원장, 의강 동해중 이사장 및 전국의 사원 주교와 정사, 전수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그동안 총지종 교도 교회에 힘쓰고 물려난 기로스승도 참석하여 강공회가 갖는 의미를 한층 더해 주었다.

첫날 개강불사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인사 법어를 통하여 "교상과 사상이 있는 총지종의 법통을 잇는 강공회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 용 맹정진의 수행을 재다짐 하는 강공이 되기를" 말했다.

또한 지성 통리원장은 "교도교

화에 노고가 많으시다."면서 "바뀐 좋은 환경에서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해 강공을 하여 주시고, 끝까지 무사히 마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번 강공회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정신교육법어에서 '새 종 풍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라고 역설하면서 제76회 추계강 공의 주제로 삼았다.

(관련기사 3면)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시대가 변하고 있다. 스승들이 철두철미

하게·삼밀관행(三密觀行)을 실천하여 거듭나는 자기수행으로 승단과 교도를 위하고, 생활불교를 널리 알려·새롭게 교화하자."고 강조 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종의회에서 결정된 괴산 기도도량 건립의 건, 벽룡사 사원부지 구입건과 화마사 사원신축 진행 상황, 법구구입 관계건들을 전국 스승들에게 종단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추계강공회의 회장은 교육원장은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와 '현대 사회에서의 재가불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외부강사에는 석길암 금강대학교 교수가 '동아시아불교의 사원, 그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공 마지막날 승단의 스승들은 지성 통리원장의 선창으로 새로운 출발을 결집하는 의미로 실천서약을 맹서하는 회향불사를 했다.

불교 총지종은 이번 추계강공회에서 새 종풍운동의 내용을 통하여 승단을 새롭게 결속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스승상의 정립, 중생제도 및 교회에 열성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관련기사 3면)

(박종한 기자)

종의회 "괴산 기도도량 건립의 건" 승인

통리원 및 재단 내년 예산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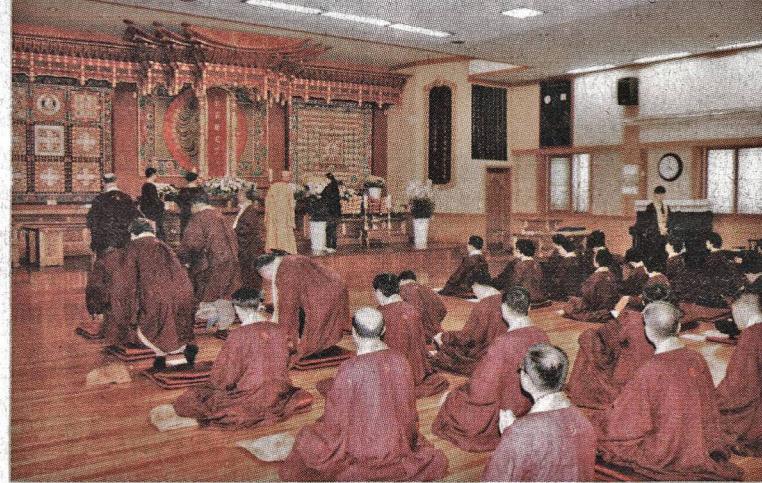
▲ 대원 종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안건 검토 장면.

불교 총지종 통리원은 제76회 추계강공회(10월 26일 ~ 28일)를 개최하기 앞서 지난 10월 13일 중앙 종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중앙종의회 의장 대원 정사를 비롯하여 지광 부의장과 정사를 비롯하여 지광 부의장과 재단의 회사에 서 심의된 벽룡사 수익사업 전환의 건과 괴산수련원 기도도량

건립의 건이 승인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올린 임원 선출의 건으로 환수원전수, 특경정사, 원당정사, 도현정사가 각 복지재단 이사로 선출된 사항을 승인하였고, 바리밀재가 장기요양기관 폐쇄 건도 승인했다. 그리고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 현감사인 지공정사 후임으로 복수 추천된 법우정사와 안성정사를 차

기감사로 심의 통과 시켰다. 한편 10월 12일에 있었던 지성 통리원장 주관으로 열린 원의회에서는 예산 및 추가경정을 심의 통과했으며, 원송 정사와 심지장 전수의 2차 연장근무를 심의 통과 시킨바 있다.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 봉행



▲ 추선불사 훈향정공.

지난 10월 13일 불교 총지종 본산 총지사에서 열반스승 추선 불사에는 효강종

령 예하와 지성 통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대원 종의회의장,

지광 부의장 등 종의회 의원 스승들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 경인 지구 스승들과 교도 100여명이 추선불사에 동참했다. 그동안 추선불사는 추계 강공때 합동으로 열렸지만, 이번 추계 강공이 통리원에서 갖는 회의와 문경에서 열릴 경강공이 분리되면서 일정을 앞당겨 추선불사를 하게 되었다. 추선불사는 총지종을 발전시키고 교도 교회에 힘쓰고 열반하신 선대 스승들에 대한 왕생성불을 추념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 대비로자나 불전호념, 훈향정공, 무상계독송, 유가삼밀과 광명진언, 실지정진으로 진행되었다.

제 76회 추계 강공회 주제

"새 종풍(宗風)운동,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1. 뼈를 깎는 듯 한 철두철미(徹頭徹尾)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여,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三密觀行) 실천하자.
2.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이다. 3.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하자.
4. 생활불교를 널리 흥포하며 실천하자 5.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자.

종단발전과 교화활성화를 위한 제3차 승단 종책토론회

종단발전과 교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승단 종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스승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 의식』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스승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각 분야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오니 이번 종책토론회에 많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1. 일 시 : 총기39년(2010년) 11월 23일(화) 1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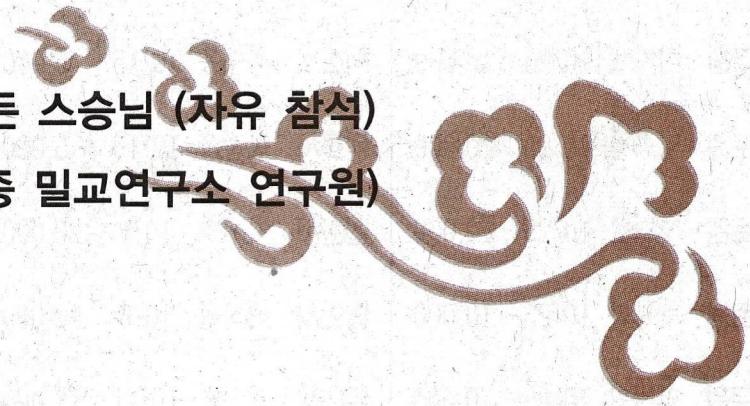
2. 장 소 : 부산 정각사

3. 주 제 :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 의식

4. 질의응답 및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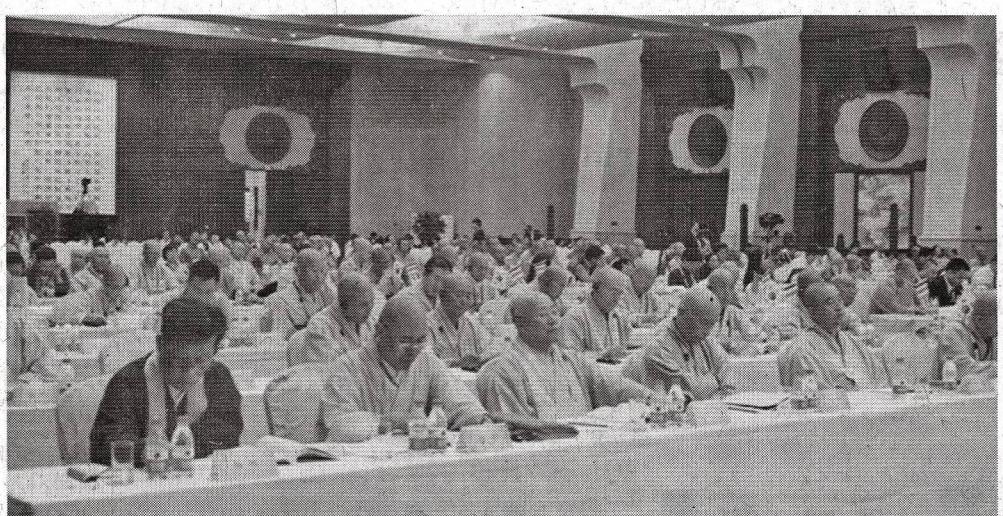
5. 참석 대상자 : 승단의 모든 스승님 (자유 참석)

6. 발표자 : 법경 정사(총지종 밀교연구소 연구원)



지성 통리원장, 제13차 한중일 문화 교류대회 참석

인선 총무부장등 집행부 일부 동행해



▲ 지성 통리원장의 제13차 한중일대회의 학술세미나 참석 모습.

불교 총지종 지성 통리원장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한국불교종단
협의회 한국대표단소속으로 중국강소
성 우시(無錫) 영산 범궁(梵宮)에서 거
행된 제1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에 참석했다.

이번행사에는 인선 총무부장, 수현 교정부장, 선도원 총지사 주교, 화령 교육워킹사이트 동행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3국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내용검토 회의와 환영만찬, 학술대회, 제14차 한중일 대회의 한국 개최건, 세계평화기원 법회등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귀국했다.

마하시스님 선센터의 명상교육

미얀마 최고의 남방불교 수행센터



▲ 미얀마 마하시 비구센터.

1949년 미얀마 수상 우누(Uno)와 봇다 사사나 누가하 협회에서 마하시 스님을 양곤에 있는 현재의 센터 건물(당시에는 사사나 예익타 협회)에 초청하여 명상 지도를 부탁하면서 센터가 시작되었다.

수행프로그램은 재가와 수계자의 구분은 있으나, 계행상의 구분만 있고 수행에 차이는 없다. 8주 기본단위 수행은 수행의 단계 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반복한다. 일정 수행이 끝나면 매일 법문과 인터뷰를 통해 수

미안마 최고의 남방불교 수행센터(위빠사나)로써, 양곤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5,096 평에 170개의 건물에 최대 수용 인원이 1,200명이 된다. 비구, 비구니, 수행자, 수녀 등 남여가 구별되어 있지만, 수행자는 대부분 승려이며, 명상 훌과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밤과 낮을 중에 수도자들의 수행력을 바로 잡는 지도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오전 3시 기상,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행하며, 7시 이후 자율수행을 한다. 취침은 밤 11시에 하고, 식사는 아침 스프와 오전 10시의 공양으로 하루 2끼만 먹는다.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미얀마에서 보내온 편지

시무 3명, 수행프로그램 정진 중



▲ 마하시 비구센터에서 JAVANA(법상). SUJATA(법선). ACINN(서강) 수계법명과 비구227계를 수지했다.

지난 10월 5일 스승 예비교육 명이 미얀마 마하시 교육의 6개
을 위해 미얀마로 출국한 시무 3 월 과정에 들어갔다. 이번 시무

정각사에서 3차 종책토론회

상장례와 49재 의식 주제로

불교 종지종은 11월 23일 부산 정각사에서 ‘종단 교화발전과 교화 활성화를 위한 승단종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3번째로 갖는 토론회의 주제는 ‘종단의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 의식 ‘으로 활발한 의견이 제시될 전

망이다. 이번 주제의 발표자인 법경정사(밀교연구소 연구원)는 “49재의식의 장중한 의례 필요성, 법구의 활용방안, 진언과의 궤계 가미등”을 발표 할 예정이라면서 “스승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셨던 의견을 소중히 들어 입 사에서 “불사법요와 의식”이라는 주제로 열린 바 있다. 향후 불교 종지종은 다양한 주제로 승단종 책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종책 수립 기초자료로 확보하고 교회 사례의 방편을 삼아 종단 발전 방안으로 삼을 계획이다.

부처님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卷之三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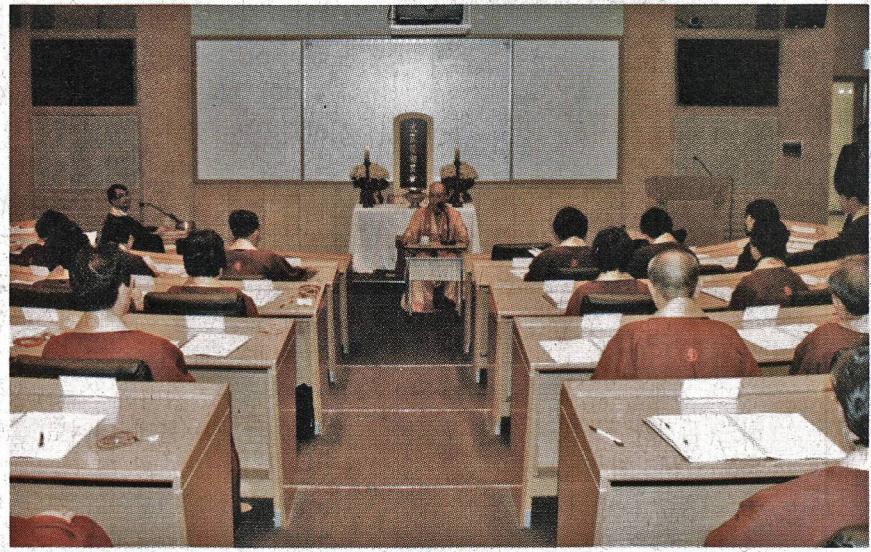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원자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제 76회 추계 강공회 법어와 강의

효강 종령 예하 정신교육 법어



▲ 효강 종령 예하는 '새로운 종풍운동'의 정신교육 법어를 했다.

시대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뜻을 바탕으로 총지종의 법통을 이어서 스승들이 시대에 부응하는 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종단도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종단은 종단중 해야 된다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타 종단도 한국 불교의 발전과 포

뜻을 바탕으로 총지종의 법통을 이어서 스승들이 시대에 부응하는 법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각으로 종풍운동을 해야 된다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타 종단도 한국 불교의 발전과 포

교를 위해 광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1. 뼈를 깎는 듯 한 철두철미(徹頭徹尾)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여,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三密觀行) 실천 하자.

없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스승이 모범을 보여야 교도들이 배우고 따라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정성 드려 불공하면 법력이 생기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념과 신심을 가지고 중생교화에 힘써야 합니다.

2.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이다.

새로운 종풍(宗風)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불공을 더욱 철두철미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 더 분발 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때를 씻어야 합니다. 완전히 버리십시오. 대일경 유심품에 보리살타 대비만행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리살타는 본인도 깨치고 타인도 깨치는 것이고, 대비만행은 용맹정진 함으로서 스스로가 힘이 생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법력이 없으면 교회 할 수

종이 한 장 아끼고, 전기도 절약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 한 방울, 밥알 하나라도 아껴야 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부처님의 재산이고, 교도들의 정성어린 재산입니다. 헛되이 쓰지 마시고, 절약하는 정신을 조그만 것부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3. 출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하자. 부처님법과 가르침에 수순해야 합

니다. 현실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전에 내 자신이 경만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이상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보리심을 증득하면 절대자 유가 생깁니다.

4. 생활불교를 널리 흥포하며 실천하자

우리 종지종은 '생활속의 불교', '불교속의 생활'을 실천하는 불교종

알리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5. 종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자.

내가 성불하겠다는 마음과 정신을 강공부터 다시 시작하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글을 몰라도 옛날에는 불공을 하다보면 글을 깨우칩니다. 성철스님은 용맹정진하다 보니 타임지가 읽혀졌으며, 일본의 어느 스님도 불공을 열심히 하니까 모르는 수학문제도 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공한 수행으로 교도들에게 교화하는 회향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안 되고, 있는 교도도 없어버리는 우(愚)를 범해야 되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수행하면 교도들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금번 국제 재가 지도자 불교대회에 많은 외국 재가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종지를 알려 실천하는 방법을 계몽해야 합니다. 재생의세(濟生醫世)의 마음으로 널리 일리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단 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시사불공(時時佛供), 장소에 관계없이 처처 불공(處處佛供)입니다. 불법의 생활을 하고 생활 불교를 실천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금번 국제 재가 지도자 불교대회에 많은 외국 재가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종지를 알려 실천하는 방법을 계몽해야 합니다. 재생의세(濟生醫世)의 마음으로 널리 일리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 화령 종양교육원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깨달음을 얻는 데는 재가와 출가의 구분이 없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자들은 출가자보다 근본적으로 열등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음은 이루기 어렵고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출가자들에 대한 보시를 통하여 복을 짓는 것 밖에는 없다는 사고방식을 지녀왔다.

재가자들이 하루 빨리 이러한 열등의식과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출가와 재가에 구애되지 않는 새로운 대승불교운동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 때에 불교는 다시 한번 긴 침에서 벗어나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나 둘, 백이나 이백, 오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올랐다."

이러한 말씀은 출가나 재가나 하는 형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깨닫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말씀이다.

출가와 재가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출가가 더욱 적합한 사람은 출가를 하여 더욱 열심히 수행하면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재가자로 머물러야 한다면 재가자로서도 훌륭히 불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출가에 따른 더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까지 출가할 필요는 없다. 열반에 이르는 길에 빠르고 느린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외형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출가의 기회를 놓쳤거나 혹은 출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재가불자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곧 '불교를 생활화하고 생활을 불교화하는 것(Buddhism in daily life, daily life With Buddhism)'이다.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따른 결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재가자가 있었습니까



총기화 스승님 달라이라마 친경기<2>

“보리심은 존재 가능하며 성취로 연결”

총기화 기로스승님이 지난 9월 15일~ 17일까지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에서 열린 달라이라마의 한국인 불자들을 위한 특별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약 3,500여명의 내외국인 불자들이 동참한 법회에서 달라이라마는 저을 참석한 대다수의 불자들을 위해 대승의 보리심을 밟는 용수보살의 저술 〈보리심식〉을 설했습니다. 법문 요지를 게재합니다.

보리심의 보리라는 말은 티베트어로 ‘장출’입니다. ‘장’은 허물을 모두 정화해 청정한 상태입니다. ‘출’은 대상을 모두 알고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허물이 정화돼 깨끗해지는 근간은 ‘장’이 2가지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고 우연한 객진(客塵)을 대치법으로 청정해진 객진정(客塵清淨)의 관건은 바로 공성입니다. 공성은 궁극의 실상을 의미합니다. 공성을 깨닫지 못하면 번뇌에 휙쓸려 끊임없는 고통을 애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의 실상인 공성이 밝지 못하면 계속 윤회를 하는 것이고, 궁극의 실상을 밝히면 윤회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은 계속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성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진을 대치로 다스려서 객진정성이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공에 대한 지견을 거듭 거듭 시유한다면 열반을 반드시 이를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법이 자성 청정(自性清淨)인데 이것이 국한된 대상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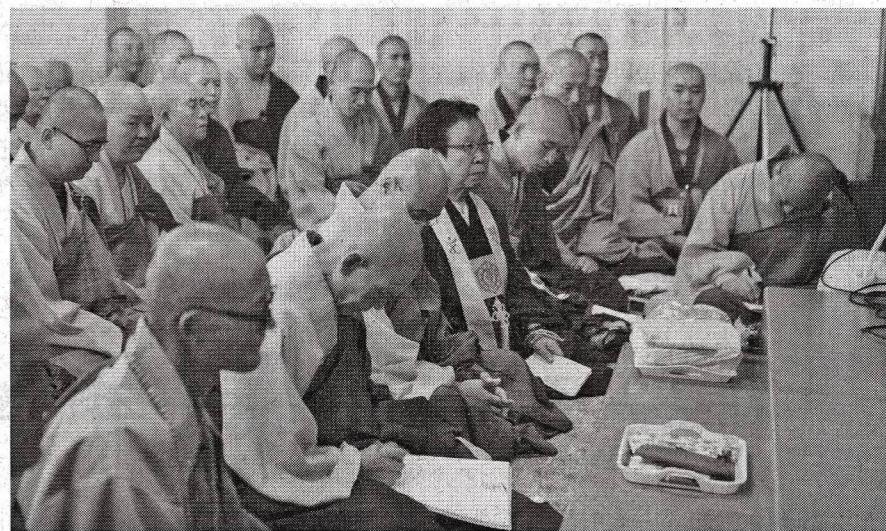
여기서 말하는 객진정과 자성정은 생명체에 국한된 의식을 지난 존재

에게 한정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 속 식(識)이라는 것은 대상을 요량하고 인지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지한데 무명의 반대인 실상(實相)을 확인해 요달할 때 본래부터 우리가 자성광명을 지니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수 보살의 저서 〈법성계전탄〉에는 “윤희의 인(因)을 소멸한 것이 열반이다. 법신 또한 그것이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업을 쌓고 윤회를 하게 됨을 말합니다. 윤회하게 하는 번뇌의 뿐만 아니라 무명에 물든 의식 상태입니다. 그



▲ 총기화 기로스승이 우리나라 스님들과 함께 법문을 듣고 있다.

어서 궁극의 일체 종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족하지만 많은 허물이 있는 의식 상태가 항상

되며, 그에 따라 행동은 같더라도 결과는 다릅니다.

처음 자신

의 동기가 옳다면 그에 맞는 선업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해탈

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한 편에 치우친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성불하기

위한 행동으로 선업을 행한다면 그 과

(果)는 무량합니다. 즉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일시적인 행복

을 준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행

복으로 이끌겠다는 생각으로 선을 행

한다면 아주 다양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리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광

장히 큰 이익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성의 지혜가 소지장을 끊어 일체 종

지를 끊는 대치법이 될 때 진정한 성

불로 가는 궁극의 원인이 됩니다.

출리심(出離心)을 내어 단순히 해탈

을 원한다면 번뇌장(煩惱障)을 베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리심을 지니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소지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공성의 지혜는 소지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승의보리심과 진제보리심(眞諦菩提心)

은 반드시 병행 돼야 합니다. 공성의

지혜를 수행할수록 모든 중생을 구

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견고해집니다.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일체 중생의 구

제를 원하는 보리심에 공성의 지혜는

힘이 되어 중장시킴으로써 공성의 지

혜와 보리심의 방편은 쌍수(雙修)가

되어 병행돼야 합니다. 백조가 하늘을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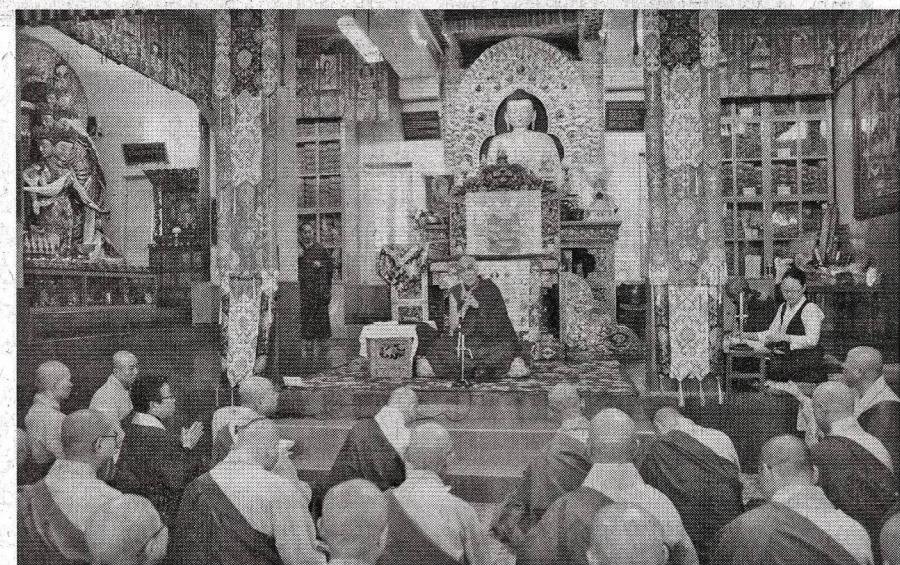
려면 두 날개를 펼쳐야 하듯 보살이 부

처가 되려면 보리심과 스승의 힘과 공

성을 깨우친 지혜의 날개를 펼쳐 선한

공덕의 발원으로 공덕을 성취합니다.

(다음호 계속)



▲ 달라이라마가 한국스님에게 특별 법문을 하고 있다.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에서 달라이라마 한국불자 특별법회

을 대치법으로 썼을 때 대상을 요량하고 광명의 자성을 가진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난 또 다른 특성은 물질적으로 바깥의 육체를 단련했을 때의 특징과 달리, 마음에 습(習)을 들였을 때 습이 견고해지고 무垢무진하게 증장될 수 있는 것이 내면의 마음이 지난 공적(空寂)입니다. 이렇게

재의 마음 상태는 대상을 인식하지만 현재 마음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모든 대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소지(所知) 즉 일체 대상을 알 수 있는데, 실제 그 렇지 못한 것은 소지장(所知障)의 일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명을 없앤다면 우리에

게 무시이래로 지나고 있었던 모든 것

을 알 수 있는 공덕들은 기존에 있는

것이기에 조건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닝마의 〈마하무

드라〉에서는 ‘본래 갖추었으나 모두

부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장출’이라는 보리심은 존재 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함입니다. 일체 종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실질적으로 소지장을 없애는 대치법이 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공성이 소지장을 없애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이전의 동기

와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총기동의보감

임산부의 건강관리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조리기간인 3~7일 동안 안정을 취하고 100일간의 2차산후조리의 기간을 거치면서 임신전의 건강한 상태로 산모의 회복을 돋기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분만 첫날은 침상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3일 부터는 수유시, 식사와 소변을 보기 위해 약간씩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7일부터는 가벼운 사务나 머리감기 화장실을 가는 정도로 움직여줍니다.

• 2주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안을 자유롭게 다녀도 좋습니다.

• 출산 시 자연분만의 경우 분만3일째부터 제왕절개의 경우 퇴원하게 되는 7일째부터 한약의 복용이 가능하며 자궁수축을 돋고 수유를 도와 산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돋게 됩니다.

음식섭취의 경우 분만 후 2주까지는 미역국을 많이 먹어 자궁내 어혈을 배출시키고 혈액생성을 도

임신 7~9주 사이 유산률 높아

분만후 2주정도 미역국 많이 먹어야

이에 임신중과 분만이후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초기 3개월에는 태아가 태반이라는 아기집을 완성하는 시기로 산모는 무리하지 않고 안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7-9주사이에 유산률이 높으며 6-16주사이에는 일정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 한방에서는 태아가 자궁내에 잘 안착해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안태를 돋는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가능한 무리하거나 오랜시간 서있거나 운전을 하는 등의 자세는 피해주는 것이 좋으며 자극적인 음식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중반기는 안정기라고 볼 수 있어 평소의 정상적인 활동 및 음식섭취도 가능하며 적당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임신후반기 3개월간에는 체중이 너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마지막달에는 1-2주를 앞두고 건강한 분만을 돋는 체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후 분만을 하게되면 1차산후

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산후 보약이라 하여 산모의 상태를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다려진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산후 체중조절에 실패하거나 회복에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주부터는 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곰국이나 쇠고기, 계란을 비롯해 야채와 적당량의 과일 등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야채는 익히고 과일은 차지 않게 가급적 이면 같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 성관계는 질과 외음부의 상처가 치유되는 8주 이후가 가능하며 산모가 체중조절을 위해 디어트를 할 경우 최소 3개월 이후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며 식사 조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유를 할 경우 모유수유가 끝난 이후가 좋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후 100일까지는 적어도 산모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 회복상태에 따라서 무리한 일을 피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족들이 협조하여야 합니다.



여성 美 한의원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간기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증독증 등...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성작(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생활액 분석기

자동 팔 강진 단기

조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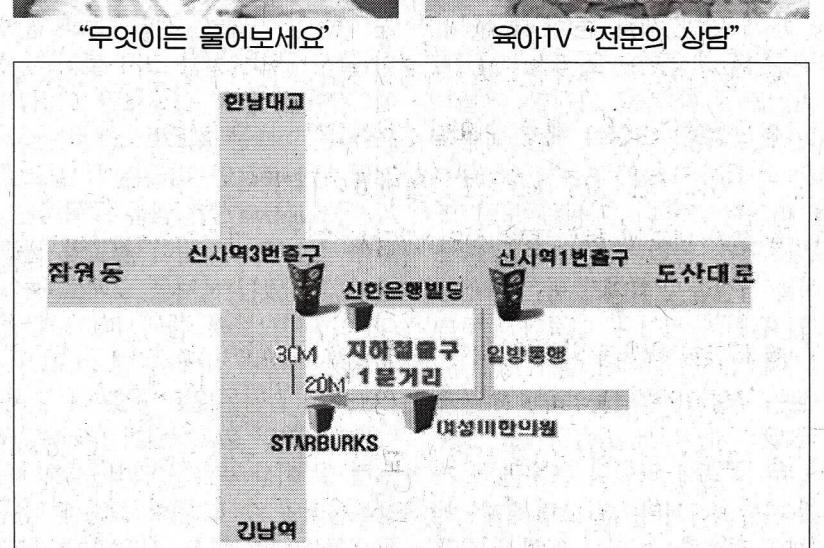
온열 전기

저주파 치료기

작은 욕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설법

“바른 자세로 용맹 정진하여 선행공덕을 쌓자”

법 수 연 총지사 전수

종조법설집 45쪽
 부처님과 같이 삶은 비밀유가 삼밀이라
 줄고 정진하는 분은 원인 깨쳐 수마 끊고
 눈을 감고하는 분은 눈을 뜨고 관행하며
 잡념으로 하는 분은 자기염송 듣고 하며
 그 공덕이 신속하여 정진사원 이뤄지며
 복지구족하게 되고 오상성신 구비한다.

성도합시다.
 오늘은 불공 할 때의 자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삼밀관행(三密觀行)은 신 구 의를 잘 다스려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많게는 사오십년을 하다 보니 저부터도 아주 습관적으로 아무 마음 없이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종조님께서 명시하셨듯이 줄면서 하는 분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하셨습니다. 전날 잠을 못 잤더니, 일로 인해 너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잠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잠이 온다(쏟아지게)는 것은 분명히 수마로 다스려야 합니다. 수마 뒤에는 반드시 지혜가 어두워서 실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당체설

법입니다. 자다 일어나면 정신없는 짓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잘 다스리면 현실생활에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차시를 쓰면서 “부처님 내가 잠이 결코 부족하지도 않는데 왜 이리 쏟아지게 잠이 옵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정신 가다듬어 간절한 마음으로 불공하면 신기하게도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현실생활에 접목하면 이것이 바로 불공하는 이유면서 보람입니다.

참고로 만공스님께서 “법문시간에 조는 이는 재상의 딸이 백정에게 시집가는 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하시는 분은 눈을 뜨고 시선을 코끝에 두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하다보면 자연히 풀게 되고 또한 헛짓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밀교법은 워낙 세밀하여 작은 것에 집착하여 마음을 빼앗기면 자칫 사(邪)로 흐르게 될 소지가 있다 하셨습니다.

왠지 번뇌로 인해 마음이 동서남북 쫓아다녀 조복되지 않을 때는 내 염송소리가 내 귀에 들릴 듯 말듯(금강염송)하면 염송소리에 도취되어 마음을 불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혼자라면 소리나게 해도 무방합니다)

이 기회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금강정좌는 우리처럼 오른발이 올라 오게 앉는 자세는 길상좌이고 왼발이 올라 오게 앉는 자세는

항마좌라고 합니다.

금강합장(자성참회합장)은 심장위에 위치하고 만약 넘어지는 경우라도 합장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굳은 합장을 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열반하신 록정대종사님께서 어느 사원 재직 시 느긋하게 뒤에 앉아 출면서 불공하시는 보살님을 호명하여 앞으로 나와 끌어 앉아 불공하게 하셨답니다. 그 시대는 법대로 실천하시고 계행 또한 엄하게 지키면서 수행을 하셨기에 자연적으로 공덕 또한 정비례

고 원망, 시기, 질투 하지 않고 항상 내면을 다스려 참회거리로 보은의 기회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종도들이 불월주야 불공드리는 이유는 미연(未然)에 복을 심고 미행(未萌)에 화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불공법이 말로 전 생의 업까지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현생의 업은 참선이나 불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 소멸할 수 있으나 전생의 업은 진언 염송이어야 소멸할 수 있다.”라

은 깜짝 놀라 동자를 살펴보니 열흘 만에 돌아온 동자의 관심이 장수할 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틀림없이 큰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갈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나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개울가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개미떼가 까맣게 앉은 나무껍질 하나가 떠내려 오기에 바로 아래 작은 폭포도 있고 해서 그냥두면 다 죽을 것 같기에 건져서 땅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스님은 “됐어 그만!” 하며 당신의 무릎을 탁 쳤다.

“그러면 그렇지 너야 말로 제대로 실천 했구나!” 1주일 뒤에 죽을 관심이었던 동자가 그야말로 자비한 마음으로 개미떼를 살려준 공덕으로 관심이 바뀌었고 80세까지 살게 되었다. 현실이 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한 마음이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조법설집 45쪽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그 동안 나 자신은 정확한 자세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봅시다. 또한 동자승처럼 얼마나 부처님 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봅시다. 수십 년간 수행한 것을 이제 가까이는 가족, 유연중생들을 위해 회향하는 진실한 불제자로 거듭 나길 서원 합니다.

나날이 좋은 날 되소서!
 <10월 16일 자성일에 총지사 서원당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정신가다듬어 불공하면 답이 나와 ...

하게 나왔습니다.

계행도 우리 법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하여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원칙인데

혹자는 내 근기애 맞지 않게 정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도리어 법문에 지게 되면 화근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제도시킨 보살님이라고 자신이 한 것처럼 전수시킨다면 정말 위험 합니다. 당연히 사원의 스승님께 일임을 해야 합니다. 근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두통이 있더라도 수많은 두통약 중에 맞는 약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하신다면 외면을 보

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심(慈心)의 선행공덕으로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법을 실천하여 관심은 물론 운명까지 바꾼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상 잘 보는 스님이 어느 날 데리고 있던 10살짜리 동자에게서 1주일 안에 죽을 관심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동자를 부모님에게 보내야겠다는 마음에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옷도 가지고 오고 한 열흘 쉬고 오너라.” 라며 보내고 마음 저리며 기다리는데 동자가 열흘 만에 아무 일 없이 돌아왔다. 스님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생은 오랜 세월 동안 오욕을 생각하고 오욕을 탐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물들고 빠져 해어날 줄을 모른다. 내가 이제 이 마군과 천상의 미녀와 모든 중생들을 청정한 계율에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밝은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하리라.」

정하게 가지므로 어떠한 감각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권세나 문벌이나 부귀 같은 것에 조금도 집착함이 없이, 청정한 계율을 굳게 가지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꾀함과 속박과 탐욕과 시끄러움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

보살이 이와 같이 청정한 계율을 가질 때 마군의 무리들이 아름다운 천상의 미녀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할지라도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욕은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빠지면 다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보살은 한 순간이라도 탐욕을 내지 않고 그 청정한 마음이 부처님과 같습니다.

보살은 탐욕으로 인해 한 중생이라도 해롭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보살

첫째가는 정진이다. 만약 정진할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망상이요 정진이 아니다. 그러므로 옛 어른이 말하기를 「망상 내지 말아라! 망상 내지 말아라!」고 한 것이다.

개으른 사람은 늘 뒤만 돌아보는데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경을 보되 자기 마음속으로 들이켜봄이 없다면 비록 팔만대장경을 다 보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은 어리석게 공부함을 깨우친 것이다. 마치 봄날에 새가 지저귀고 가을 밤에 벌레가 우는 것처럼 아무 뜻도 없는 것이다. 규봉 선사가 이르기를 「글자나 알고 경을 보는 것으로는 원래 깨칠 수 없다. 글귀나 새기고 말뜻이나 풀어 보는 것만으로는 팀복이나 부리고 성을 내며 못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수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에게 자랑하려고, 한자 말재주나 부려 서로 이기려고만 한다면 변소에 단정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말세에 어리석게 수행하는 것을 일깨우는 말이다. 수행이란 본래 제 싱풀을 닦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고 있으니 이 무슨 생각일까.

진리의 여울

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계와 중생계의 끝이 없고 틈이 없는 법과 공하고 형상없고 자체가 없고 처소가 없고 의지가 없고 지음이 없는 법을 생각할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제 몸도 보지 않고, 보시하는 물건도 보지 않고, 받는 이도 보지 않고, 보시하는 물건도 보지 않고, 받는 이도 보지 않고, 복발도 보지 않고, 업도 과보도 그 결과도 보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배우신 것을 나도 모두 배우고 밝은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알고, 중생들을 위해 삼세가 평등하고 고요하며 무너지지 않는 법의 본성을 말해주어 그들이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입니다.

◇ 이롭게 하는 행

『여러 불자들, 보살의 이롭게 하는 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계율을 청

보살은 탐욕으로 인해 한 중생이라도 해롭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보살

◇ 첫째가는 정진

본바탕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총지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총지문화센터 수강생을 모집 합니다. 현재 밸리댄스 기초반과 초의차 명상, 멀티테라피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밸리댄스 - 매주 화, 목 (오전 10시 / 오후 7시) / 월 5만원(3개월 10만원)

● 초의차 명상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시 30분)

/ 월 2만원 (10주 5만원/ 교재비 5천원 별도)

● 멀티테라피 협회 통합심리 상담사 3급 - 매주 월요일 (10시 30분 ~ 12시까지)

/ 6주 25만원.

● (아동) 아이멀티 통합미술 - 매주 월, 수, 금(2시~3시)

/ 월 6만원(재료비 5천원 별도/3개월 수강시 재료비 면제)/유치부, 초등부

● (아동) 집중력 높여주는 색채교실 - 매주 월, 수, 금(2시~3시)

/ 월 6만원 (재료비 5천원 별도 / 3개월 수강시 재료비 면제)

● 직장인을 위한 휴(休)아트 아뜰리에 - 매주 월, 금(7시 30분 ~ 8시 30분)

/ 월 10만원(재료비 1만원 별도/3개월 수강시 재료비 면제)

● 테라피 아뜰리에(테라피 페인팅 동호회) - 매주 수요일 (7시 30분 ~ 8시 30분)

/ 월 10만원(재료비 1만원 별도/3개월 수강시 재료비 면제)

● 화를 다스리는 동양화 - 매주 금요일 (10시 30분 ~ 11시 30분)/월 12만원

● 내 손으로 만드는 테라피 DIY- 매주 금요일 (12시 ~ 1시 30분)

/ 월 10만원(재료비 2만원/3개월 수강시 재료비 면제)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am10:00 10:30 11:00 11:30 pm12:00 12:30 1:00 1:30 2:00 3:00 3:30 4:30 7:00 7:30 8:30	기초 밸리댄스 멸티테라피 협회 통합심리상담사 3급 (6주 광장 후, 수료증 발급) 강사 : 선민아	마음을 다스리는 아뜰리에 강사 : 선민아		
	아이멀티 통합미술	기초 차명상 이론 및 실습		
	집중력을 높여주는 색채교실	집중력을 높여주는 색채교실		
	직장인을 위한 휴(休)아트 아뜰리에	테라피 아뜰리에 (테라피페인팅동호회)	기초 밸리댄스	직장인을 위한 휴(休)아트 아뜰리에

교육문의 02) 3452-7485

외길인생의 아름다움

며칠 전 내가 봉사하고 있는 문화자원봉사자회에서 강릉으로 문화답사를 갔다.

우리들이 하는 봉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등 이어서 강의도 듣고 답사도 하며 재충전 할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는 강릉에 있는 '선교장'과 '참소리축음기'- 에디슨과학박물관을 답사했다.

선교장은 강릉 명문으로 알려진 '이내변'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하여 대대로 후손들이 거처하는 집으로, '열화당' '안재' '동별당' '활래정' 등 모두 4채가 있다. 우리나라 전통 고택으로 가장 잘 보존된 집이다. 1800년대 초반 전성기 시절에는 1년에 3만석을 수확하는 조선 재벌집이었다고 한다. 하인만 해도 100여명이었다고 한다.

이 집의 사령체인 '열화당과 활래정을 지은 대 지주 '이 후' (1773~1832)는 "재산을 일으키는데 있어 올바른 도리에 따르면 일어나고 도리에 거스르면 망한다." "사람이 돈을 나누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나눌 것이다." "하늘이 나 눈다면 먼저 화를 내릴 것이니 사람이 나누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소장품을 국가가 지원해야

이 가르침은 우리 불교에서 먼저 희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오늘 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 주려고 했는가? 내 자신에게 반문해 본다. 이 곳에서 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이 집에는 현재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더 살아있는 박물관 느낌이 난다. 마침 외국 학생들이 집을 둘러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 뛰듯했다.

선교장을 뒤로 하고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으로' 향했다. 선교장을 뒤로 하고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으로' 향했다. 손섬록 관장이 40여 년간 60여 개국에서 축음기를 모아 1992년에 문을 연 세계 최대 규모의 오디오 박물관으로 17개국에서 만든 축음기 4000여 점 가운데 1400여 점의 축음기와 음반 15만장, 그리고 8000여 점의 음악 관련 도서 자료들이 진열되어 있어 100년 소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에디슨박물관보다도 에디슨이 만든 축음기 작품들이 더 많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다.

에디슨 발명품관에는 에디슨의 3대 발명품인 축음기, 전구, 영사기를 비롯한 에디슨 발명품 8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총 400여 평의 규모에 4개의 독립 전시관과 100여 평 규모의 전용 음악 감상실이 있다. 이곳에 전시된 기기들은 지금도 생생한 음악을 선사한다. '아메리칸 로노그래피' 같은 것은 전세계에 하나뿐인 기기가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텔레비전도 있고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인 유성기 1호도 여기에 전시되어 있다.

전시품의 방대한 양에 비해서 전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너무 춤출히 전시되어 갑갑함을 느꼈다. 귀중한 문화재가 좁은 공간에 진열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 못해 분노를 느끼게 했다.

관장님이 이 많은 것을 수집하게 된 동기는 6살 때 (1948년) 아버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콜롬비아 포터블축음기'였다고 한다. 전쟁이 터지자 8살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와 함께 이 축음기 하나만 들고 피난을 내려 왔다고 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수집의 길로 들어 섰다고 한다.

이 박물관에도 전시 설명을 해 주는 도슨트가 있었다. 자원 봉사자는 아니고 이곳의 직원이 직접 기기를 조작하며 설명해 줘서 이해가 잘 되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꼭꼭 집어줘서 전문가다웠다.

전시품목이 한 개인의 수집에 의한 것이라 사실과 그 종류와 숫자에만도 우리 모두 놀라게 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어려운 길을 그의 길로

이끌었을까? 수집 과정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고 수집품 한가지를 손에 넣기 위해 먼 해외를 수 차례 건너가 끊길기로 설득하고 막대한 돈을 들이기도 했다고 한다.

'음악은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승이고 애인이다.'라는 집념으로 40여 년간 세월을 축음기를 수집하면서 그 중 20여 년을 박물관 운영에 바친 외길 인생을 걸어 오면서 현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진열 되지 않은 7동의 컨테이너 박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각종 영사기도 영화 박물관으로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당에는 오랜 옛날 자동차도 잘 전시 되어 있다.

개인의 수집품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조차 없는 귀중한 문화 유산인데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막대한 금액이 드는 이 일을 개인에게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이 문화유산은 한 개인이 수집한 것이지만 이미 한 개인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물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 주고 온 국민의 문화유산으로 잘 보전 되기 위해 국가나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 오는 길, 해 자는 버스 차창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관장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을까? 그 가족들의 이해가 없었으면 이런 위대한 일을 해 낼 수 있었을까? 그 가족들에게도 친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다.

- 박묘정 -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목

숨을 끊어서까지 살 필요가 없다.

자기의 몸을 죽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따라서 데리고 온 아내를 죽이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아내를 죽이지 않더라도 살 방법이 있을 것이다.)하고 생각했다.

나라 안도 평온하여 왕자도 모두 무사히 자라서 부왕은 이웃 나라의 왕녀를 맞이해서 각각 네 왕자의 아내로 했다.

지금까지 부왕에 뜻에 따르고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었던 네 왕자가 각각 아내를 맞이하니 갑자기 부왕에 대하여 위험을 가할 마음을 일으켜서 왕위를 엿보게 되었다.

왕자에게 반역할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국왕은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 매우 화가 나서 마침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알게 된 미당에 그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므로 마침내 네 왕자를 나라 밖으로 추방해서 흉계를 방지하기로 했다.

거역하려는 것이 깨끗되고 나라 밖으로 추방 당하게 된 네 왕자는 자학 자득이라고 할까, 너무도 빨리 폭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각각 아내를 데리고 고국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다.

도보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왕자들은 알지 못하는 타국을 항해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계속했다.

준비해온 식량도 돈도 점점 줄어서 어느 광막한 황야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한 알의 식량도 남지 않았다. 굶주림은 시시각각

으로 더하여서 몸을 괴롭혔고 죽음이 다가올 뿐이었다.

이때 형제들은 비밀로 자기들의 아내를 죽여서 그 고기를 먹어서 이 굶주림을 피하여 이 들판만 지나가기로 서로의 논했다. 그들도 자기의 아내를 죽이는 것은 인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더욱이 이 방법 밖에는 자기들이 살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형제 세 사람이 이러한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막내 동생인 소지왕자(小枝王子)는 듣고 있을 뿐이 무서운 일에 몸서리쳤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목

숨을 끊어서까지 살 필요가 없다.

자기의 몸을 죽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따라서 데리고 온 아내를 죽이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아내를 죽이지 않더라도 살 방법이 있을 것이다.)하고 생각했다.

나라 안도 평온하여 왕자도 모두 무사히 자라서 부왕은 이웃 나라의 왕녀를 맞이해서 각각 네 왕자의 아내로 했다.

지금까지 부왕에 뜻에 따르고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었던 네 왕자가 각각 아내를 맞이하니 갑자기 부왕에 대하여 위험을 가할 마음을 일으켜서 왕위를 엿보게 되었다.

왕자에게 반역할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국왕은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 매우 화가 나서 마침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알게 된 미당에 그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므로 마침내 네 왕자를 나라 밖으로 추방해서 흉계를 방지하기로 했다.

거역하려는 것이 깨끗되고 나라 밖으로 추방 당하게 된 네 왕자는 자학 자득이라고 할까, 너무도 빨리 폭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각각 아내를 데리고 고국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다.

도보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왕자들은 알지 못하는 타국을 항해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계속했다.

준비해온 식량도 돈도 점점 줄어서 어느 광막한 황야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한 알의 식량도 남지 않았다. 굶주림은 시시각각

으로 더하여서 몸을 괴롭혔고 죽음이 다가올 뿐이었다.

이때 형제들은 비밀로 자기들의 아내를 죽여서 그 고기를 먹어서 이 굶주림을 피하여 이 들판만 지나가기로 서로의 논했다.

그들도 자기의 아내를 죽이는 것은 인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더욱이 이 방법 밖에는 자기들이 살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형제 세 사람이 이러한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막내 동생인 소지왕자(小枝王子)는 듣고 있을 뿐이 무서운 일에 몸서리쳤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목

숨을 끊어서까지 살 필요가 없다.

자기의 몸을 죽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따라서 데리고 온 아내를 죽이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아내를 죽이지 않더라도 살 방법이 있을 것이다.)하고 생각했다.

나라 안도 평온하여 왕자도 모두 무사히 자라서 부왕은 이웃 나라의 왕녀를 맞이해서 각각 네 왕자의 아내로 했다.

지금까지 부왕에 뜻에 따르고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었던 네 왕자가 각각 아내를 맞이하니 갑자기 부왕에 대하여 위험을 가할 마음을 일으켜서 왕위를 엿보게 되었다.

왕자에게 반역할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국왕은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 매우 화가 나서 마침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알게 된 미당에 그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므로 마침내 네 왕자를 나라 밖으로 추방해서 흉계를 방지하기로 했다.

거역하려는 것이 깨끗하고 나라 밖으로 추방 당하게 된 네 왕자는 자학 자득이라고 할까, 너무도 빨리 폭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각각 아내를 데리고 고국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다.

도보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왕자들은 알지 못하는 타국을 항해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계속했다.

준비해온 식량도 돈도 점점 줄어서 어느 광막한 황야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한 알의 식량도 남지 않았다. 굶주림은 시시각각

으로 더하여서 몸을 괴롭혔고 죽음이 다가올 뿐이었다.

이때 형제들은 비밀로 자기들의 아내를 죽여서 그 고기를 먹어서 이 굶주림을 피하여 이 들판만 지나가기로 서로의 논했다.

그들도 자기의 아내를 죽이는 것은 인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더욱이 이 방법 밖에는 자기들이 살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형제 세 사람이 이러한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막내 동생인 소지왕자(小枝王子)는 듣고 있을 뿐이 무서운 일에 몸서리쳤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목

숨을 끊어서까지 살 필요가 없다.

자기의 몸을 죽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따라서 데리고 온 아내를 죽이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아내를 죽이지 않더라도 살 방법이 있을 것이다.)하고 생각했다.

나라 안도 평온하여 왕자도 모두 무사히 자라서 부왕은 이웃 나라의 왕녀를 맞이해서 각각 네 왕자의 아내로 했다.

지금까지 부왕에 뜻에 따르고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었던 네 왕자가 각각 아내를 맞이하니 갑자기 부왕에 대하여 위험을 가할 마음을 일으켜서 왕위를 엿보게 되었다.

왕자에게 반역할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국왕은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 매우 화가 나서 마침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알게 된 미당에 그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므로 마침내 네 왕자를 나라 밖으로 추방해서 흉계를 방지하기로 했다.

거역하려는 것이 깨끗하고 나라 밖으로 추방 당하게 된 네 왕자는 자학 자득이라고 할까, 너무도 빨리 폭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각각 아내를 데리고 고국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다.

도보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왕자들은 알지 못하는 타국을 항해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계속했다.

준비해온 식량도 돈도 점점 줄어서 어느 광막한 황야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한 알의 식량도 남지 않았다. 굶주림은 시시각각

으로 더하여서 몸을 괴롭혔고 죽음이 다가올 뿐이었다.

이때 형제들은 비밀로 자기들의 아내를 죽여서 그 고기를 먹어서 이 굶주림을 피하여 이 들판만 지나가기로 서로의 논했다.

그들도 자기의 아내를 죽이는 것은 인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더욱이 이 방법 밖에는 자기들이 살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형제 세 사람이 이러한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막내 동생인 소지왕자(小枝王子)는 듣고 있을 뿐이 무서운 일에 몸서리쳤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목

숨을 끊어서까지 살 필요가 없다.

자기의 몸을 죽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따라서 데리고 온 아내를 죽이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아내를 죽이지 않더라도 살 방법이 있을 것이다.)하고 생각했다.

나라 안도 평온하여 왕자도 모두 무사히 자라서 부왕은 이웃 나라의 왕녀를 맞이해서 각각 네 왕자의 아내로 했다.

지금까지 부왕에 뜻에 따르고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었던 네 왕자가 각각 아내를 맞이하니 갑자기 부왕에 대하여 위험을 가할 마음을 일으켜서 왕위를 엿보게 되었다.

왕자에게 반역할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국왕은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 매우 화가 나서 마침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알게 된 미당에 그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므로 마침내 네 왕자를 나라 밖으로 추방해서 흉계를 방지하기로 했다.

거역하려는 것이 깨끗하고 나라 밖으로 추방 당하게 된 네 왕자는 자학 자득이라고 할까, 너무도 빨리 폭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각각 아내를 데리고 고국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다.

도보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왕자들은 알지 못하는 타국을 항해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계속했다.

준비해온 식량도 돈도 점점 줄어서 어느 광막한 황야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한 알의 식량도 남지 않았다. 굶주림은 시시각각

으로 더하여서 몸을 괴롭혔고 죽음이 다가

날마다 좋은날

많이 가진다는 것

자인행(운천사)

모재벌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나오고 있다. 비자금이란 사주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발생한 부정적 자금에 대하여 세금을 추적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한 자금을 통칭한다.

불법적으로 모은 돈이라 그 용도도 부정적이고 불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비자금에 관련된 회사나 사주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지탄을 받고 또한 법적으로도 제재와 처벌을 받으면서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일 것이다.

또한 물질만족주의가 팽배한 요즘 세대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흔히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이나

성격, 마음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의 대소로 구분 짓는 오류를 범하곤 있다. 그래서 우린 사람을 만날 때 일단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그 사람이 소유하는 소유물이나 누리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곤 한다. 물론 가진 소유물이 많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인품이나 마음자리 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요즘 현대사회는 소유물을 가지지 못한, 혹은 소유물이 적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다 더 많은 소유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말 그대로 소유물

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렇듯 우리는 젊어서부터 넓은 집, 멋진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등등 많은 소유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귀처럼 남의 것을 탐하고 주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일생동안 많은 것을 가지는데 치중하다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 나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넓은 아파트 평수, 좋은 차, 내가 이루해 놓은 커다란 사업체, 나의 명예, 등등 그 어떤 것이 우리네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비뚤어진 사회적 관습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다. 이런 전도된 가치관으로 우린 우리의 본래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동한 것을 위해서 인생

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세간의 것대로만 내 삶의 가치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소유하는데 만 너무 급급하게 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 일생의 목표로 세우기도 한다.

한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끄집어내어 놓고 내 호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친히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 한 행위가 혹시 남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과연 이것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이다.

떠나가고 수많은 꿈을 추억속에 넣고
우주 여행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겠지.

그런데...
인생은 바람처럼 스쳐 가는 것이라
고 말하고 싶었다
길지 않은 삶이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스쳐지나 가는 것 아니겠는가
인연도 모든 사물도
오래 머물 수 없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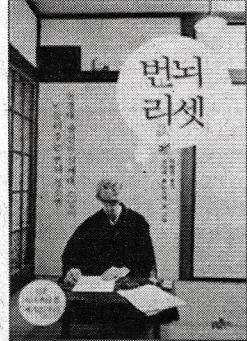
인생은 꿈일 수도.
바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 최혜선 -

이달의 추천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금강 지음/마음의 숲



스님들이 전하는 사랑 이야기는 점점하면서 깊은 감동을 전한다.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수행의 완성에 이르는 길을 역설한 법상 스님의 이야기, 오르페우스 신화를 통해 돌아설 줄 아는 사랑의 수행을 음미한 보경 스님의 이야기, 한 불자의 죽음을 통해 생과 사, 행복과 불행을 관통하는 사랑을 성찰한 주경 스님의 이야기 등 24명의 스님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에는 그저 표면적인 사랑에서 벗어난 참사랑의 놀라운 에너지가 담겨 있다.

변뇌 리셋

코이케 루노스케 지음/이해연 옮김/
불광 출판사

무거운 주제
이지만 1978년
생신세대(?)
답게 글과 그림이 밀접발달
하게 전개되는 까닭이다. 모두 9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책은 각에

피소드마다 네 컷짜리 만화가 실려 있다.

'동지승', '비둘기', '속물군', '활멸 선생' 등으로 명명된 등장인물들은 네 컷짜리 만화 속에서 각각 육심과 협오 그리고 무지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만화에 이어 전개되는 글 속에서 이 신세대 스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번뇌에 대한 설명한다. 물론,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고 마음챙김하는 법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는다.

나를 찾아 떠나는 당시 여행

제운 스님 지음/지혜의 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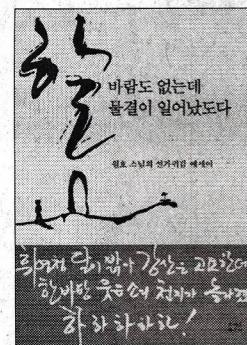
이 책은 '행복'에 관한 책이다. 저자는 행복하려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



며 "마음이 용인하지 않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원효대사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깨달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나도

월호지음/조계종 출판사



조선후기 청허 휴정 스님의 대표 저작인 『선가귀감』은 당시 불교 공부하는 이들의 자세와 승풍을 바로잡기 위해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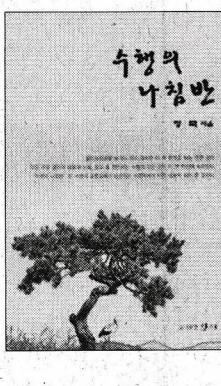
'활! 비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도다'는 현대 불자들의 악의하고 둔해진 정신을 바로 잡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야 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인가가 관건이다. 제운 스님은 행복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며 "마음이 용인하지 않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원효대사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깨달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행의 나침반

정목 지음/향지



쉽게 풀어낸 경전 『수행의 나침반』은 팔만 대장경을 보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주요 경전의 내용과 논장, 밀교 등 현존하는 수행에 대한 다양 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중요한 경전이나 일반인이 많이 알고 있는 대중적이고 꼭 필요한 경전을 추려내어 중요한 핵심과 전개 과정을 밝힌다.

우리들 이야기

인생이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느분이 물어 왔다

인생은 꿈이라고... 꿈

언제나 꿈을 꾸면서

살아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을 꿈꾸고

여름이 지나면

다시 멋진 단풍을 생각하면서

가을을 꿈꾸고

가을이 깊어질때쯤

하얀눈을 그리워하면서

겨울을 생각하게 되겠지..

돌고 돌면서

우리의 인생은 흘러 갈것이고

그러다 보면 잠시 소풍을 마치고

생활상식

▶ 귓속의 청결을 유지하기

더러워진 귓속은 면봉으로 화장수를 물려 닦아낸다. 아무리 멋을 냈어도 귀 언저리나 귓속이 더러우면 이를다 움이 사라진다.

거즈를 손가락에 감아 뜨거운 물을 적셔 비누칠을 한 다음 이것으로 귀를 닦고 그 다음에 타월로 씻어낸다. 평소에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닦아 내기만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비누를 쓰도록 한다. 밖으로 많이 다녀 활동량이 많은 날은 면봉으로 화장수를 적셔 귓속을 닦으면 더러움이 깨끗이 없어진다.

▶ 목 주름 예방하는 법

목에 있는 주름은 나이를 가장 잘 드러낸다. 목 주름을 예방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마사지 법이 있다.

목덜미에 유액을 바르고 엄지 손가락으로 털처럼 손을 회전시키면서

열 번쯤 위 아래로 밀어 올렸다가 밀어 내린다. 목의 원 쪽에는 오른손을,

오른 쪽에는 왼손을 사용한다.

육합상(六合相)

불교상식②

원(圓)과 바깥으로 향해 있는 여섯 가닥의 광선은 대일여래의 원만한 모습과,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두루 비춘다는 광명변조의 뜻입니다.

가운데의 원상은 밀교의 만다리이며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상징입니다.

수행적인 뜻은 평등한 성품 가운데 너와 내가 없으며, 큰 지혜의 거울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는 수행목표로서 대일여래와 같이 원만한 인격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테두리의 6개의 꽃잎 모양은 연꽃을 나타내며, 관세음보살의 본심이 묘진연인 '옴마니반메훔'을 표현합니다.

육합연화는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며, 우리의 무명이 걷으면 현실이 곧 깨달음의 세계가 되는 즉신성불의 원리입니다. 수행적인 뜻은 육바라밀과 삼밀수행으로 내세의 극락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본종의 대서원을 상징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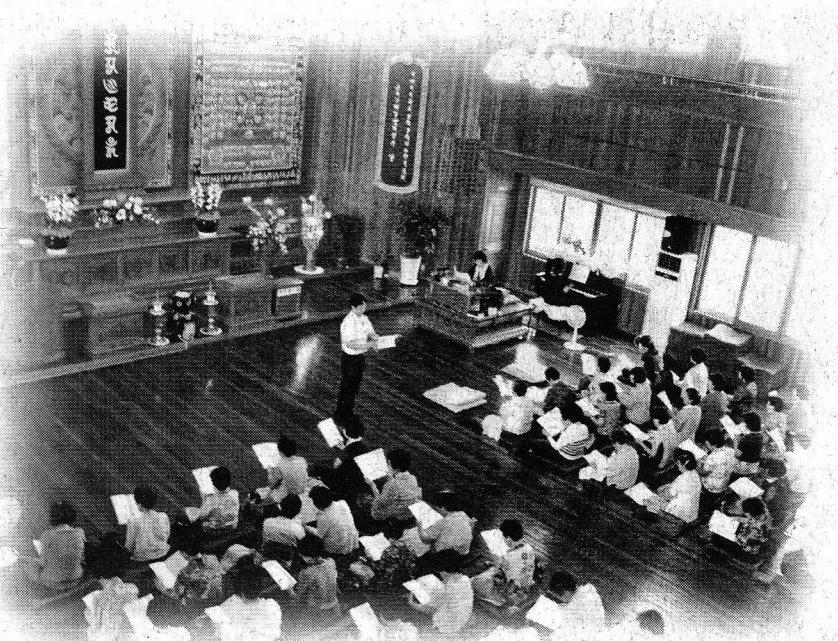
부산 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부산 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시
- ◆ 연습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 연습장소 : 정각사 합창단실
- ◆ 연락처 : 김윤경 단장

051)552-7901

제13차 한중일대회 중국 무석에서 개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 발원’ 공동선언



▲ 제13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에 참석한 3국 대표단의 기념촬영.

‘제13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가 10월 19일 중국 무석에서 개최됐다. ‘황금유대 화합정신의 계승과 발전·조각조 선생을 추모하며’를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차승), 중국불교협회(회장 환인), 일중한국제불교협회(이사장 고바야시 류쇼) 등 3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대표인 천태종 총무원장 정

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정사,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을 비롯하여 각국 참관단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산 범궁(梵宮)에서 세계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상호 우호 증진과 세계평화 구현을 위한 3국 불자들의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대표단은 이어 “오늘의 세계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이끌려 인과율을 무시하고 물질적인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환경오염, 기후온난화, 에너지부족, 빈부격차, 도덕상실, 사회혼란, 금융위기, 테러행위 등 심각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간을 정화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신성한 역사적 사명으로 이것이 바로 ‘황금유대’가 미래 인류문명에 대한 중대한 공헌이자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스님은 “한중일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긴장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법은 부처님의 자비와 생명존중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번 공동선언 채택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제14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를 내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예비회의를 겸한 교류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본대회는 10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중국불교협회 수행체험단 40명(비구 20명, 비구니 20명)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진각종, 문화전승원 상량불사 봉행 밀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끌어줄 도량



▲ 진각종 도흔 총인 예하와 스승들의 상량불사.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내 공사현장에서 진각문화전승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상량식에서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진각문화전승원은 우리나라 밀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줄 수 있는 도량”이라며 “이번 상량식을 통해 전국 스승들

의 마음을 모으고 정진, 수행으로 종단이 발전하며 국가가 부국해져 경제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도발원을 한 교육원장 정사는 “진각문화전승원이 종단의 교회발전을 위한 큰 터전이 되어 불법이 흥왕하고 종단 새 역사의 기풍이 진작되기

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진각문화전승원은 12,561m² 대

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전통양식 현대건물로 건립된다.

주차장과 복합전시관, 강당, 종

조박물관, 밀교자료실, 세미나실,

종무행정공간, 총인 및 원장실,

도서관과 밀교체험공간, 진호국

가도량, 삼밀수행공간 등 밀교적

가르침과 세계 및 한국밀교문화

역사를 조감하고 체험할 수 있

도록 지어진다. 문화전승원은 내

년 상반기 낙성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도흔 총인예하를

비롯해 통리원장 혜정 정사, 종

의회의장 혜명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효운 정사, 전 통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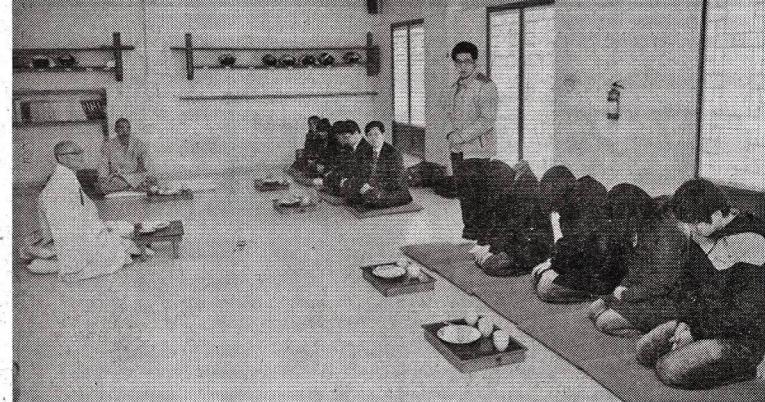
(밀각심인당 주교) 회정 정사,

배도순 위덕대 총장 등이 참석

했다.

봉은사에서 기독교식 기도 -- 불교모독

· 찬양인도자학교 관계자, 명진스님께 사과



▲ 무지한 동영상을 만든 학생들이 명진스님께 사과하고 있다.



▲ 법당에서 기독교식으로 기도하는 학생.

10월 27일 봉은사 땅밟기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개신교 단체인 ‘찬양인도자학교’ 최지호 목사와 담당간사, 문제 동영상 만든 학생 10여명이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께 찾아와 뒤늦게 사과 했다.

또한 스님은 “불교는 나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는 철학이며, 이를 우상숭배로 보는 것은 무

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성찰을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진스님은 남을 배려하고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청년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일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이 종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 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10월 24일 ‘봉은사에서 땅밟기’란 제목으로 봉은사 대웅전에서 버젓이 예배를 보고 사찰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 불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들은 불상을 우상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학생들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하나님에 의해 이 땅은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라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개신교 지도자들의 진정어린 성찰과 책임 있는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이 있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라며 “정부당국은 다시 한번 종교 차별, 종교갈등 유발 행위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 포교결집을 위해 인천 불자들이 모여 서원하고 있다.

인천지역 포교결집대회 개최

2000여 명 참석, 불교포교다짐

조계종 포교원이 10월 17일 불교세가 취약한 인천지역에서 포교활성화와 역량을 결집하는

‘2010 인천지역 포교결집대회’를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수도권의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인 인천지역 포교는 매우 낙후돼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화합된 힘과 강한 원력만 있다면 인천지역은 머지 않아 수도권 포교의 큰 거점,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앞으로도 인천의 불자님들을 중심으로 불국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한다”

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모범적인 실행활동으로 불법 흥포와 지역발전에 힘쓴 민이식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총괄팀장, 이상설 강화불교신도연합회장, 군불교후원회, 강

애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포교결집대회 봉행위원장 선일스님은 봉행에서 “수도권의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인 인천지역 포교는 매우 낙후돼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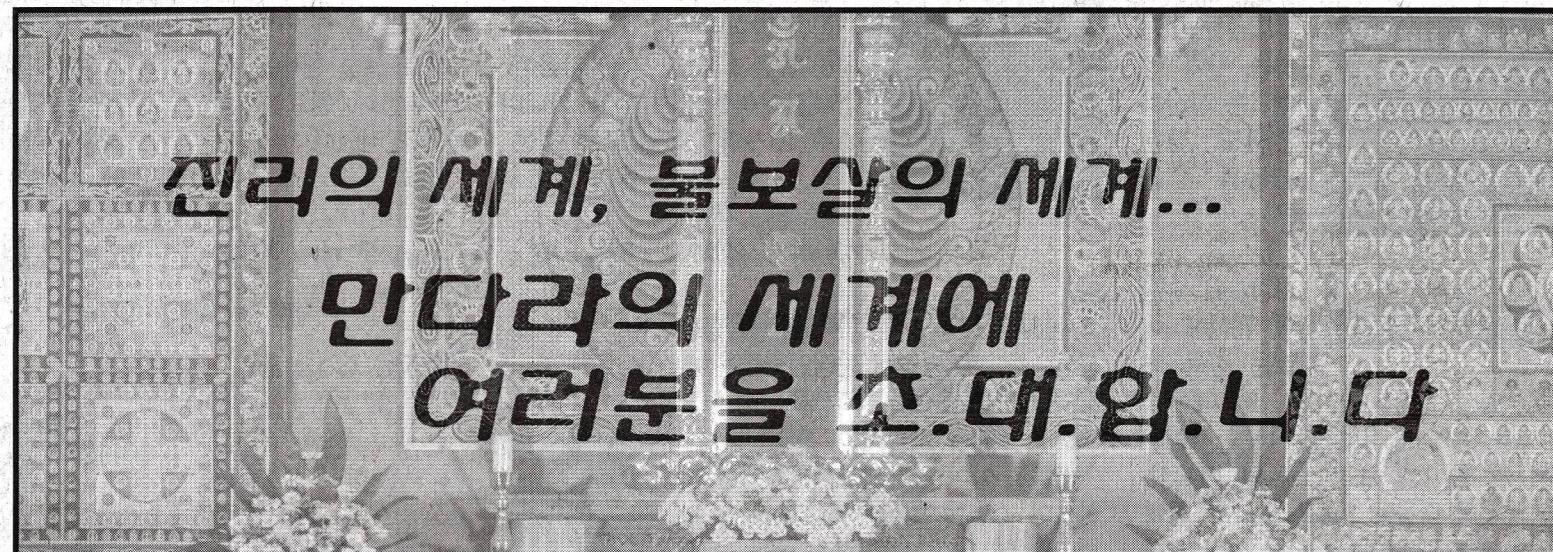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화합된 힘과 강한 원력만 있다면 인천지역은 머지 않아 수도권 포교의 큰 거점,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앞으로도 인천의 불자님들을 중심으로 불국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한다”

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모범적인 실행활동으로 불법 흥포와 지역발전에 힘쓴 민이식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총괄팀장, 이상설 강화불교신도연합회장, 군불교후원회,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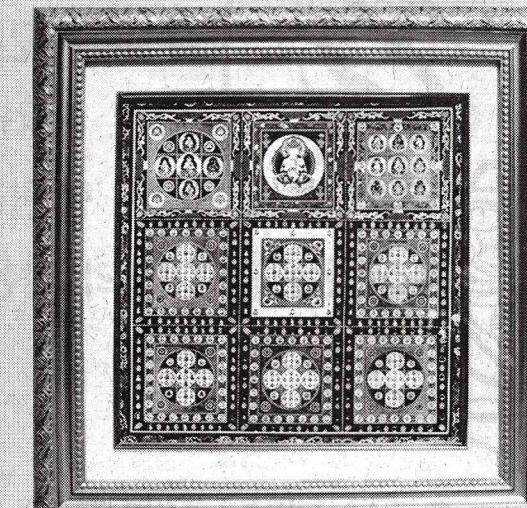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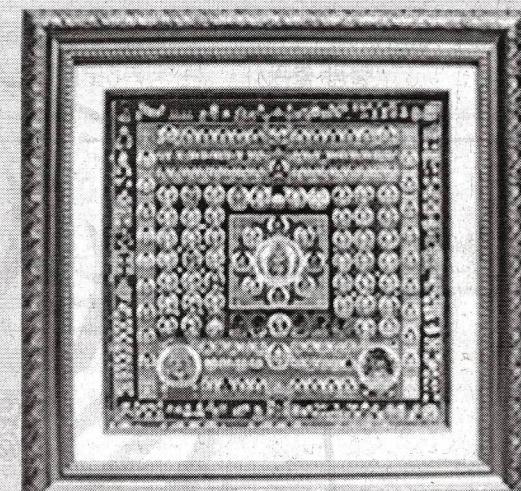
화경찰서불자회에 포교공로상을 수여했다.



일체재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려분을 초대합니다.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아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명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업연을 중심으로 12대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세전,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성인외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세전, 연경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 동일)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 :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 : 불교총지총

불교총지총

“비움으로 행복 찾으세요” 캠페인 열려

‘채움’보다는 ‘비움’ 실천하고 이웃 아픔 함께 고민해요



▲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108배를 올리면서 ‘비움으로 행복 찾기’ 행사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공익기부단체인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비움으로 행복 찾기’ 캠페인 선포 행사를 열었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비움으로 행복찾기” 캠페인은 물질만능 시대에 ‘채움’보다는 ‘비움’을 실천하고, 가치와 양심,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자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혜경 스님은 “큰 것을 나누는 것보다 작은 것을 나누려는 것이, 채우려는 것보다 비우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작은 출발이지만 참다운 삶을 실현하는 전환된 삶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행사에서 선포된 3가지 실천 운동은 ①몸의 비움, 자기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존재하게 해준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108배를 매월 하기 ②마음의 비움, 나를 제외한 주변과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는 대상 108개를 정해 매

달 한 대상 씩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간직. ③재물의 비움, 감사와 기원의 마음이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매월 10,800 원(1배 100원)을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 등이다. ‘내가 아는 모든 생명을 깊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에게 있는 나쁜 성품을 다스리며 절합니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을 내려놓으며 절합니다’는 스피커를 통해 훌려 나오는 발원문을 따라 1배씩 절을 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앞으로 매달 셋째주 토요일마다 광장이나 공원 등에서 ‘비움으로 행복 찾기’ 실천운동을 계속한다.

순 강창일(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우희종(서울대), 성태용(건국대), 김용현(동국대) 등 교수, 삼성사회봉사단 장인성 상무, 르노삼성자동차 류재현전무, 필립 모리스 김병철 전무 등 기업인, 산인인 엄홍길씨, 방송인 정재환씨 등 문화계와 법조, 교육, 의료,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 108명이 앞으로 분야별로 ‘비움’ 캠페인을 홍보하고 동참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선포 캠페인에서 대금 연주가 전범수씨의 연주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구석고씨가 볏글씨로 ‘비움’을 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볏글씨 위에 참석자들이 켄 초를 놓고 108배에 들어갔다.

‘내가 아는 모든 생명을 깊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에게 있는 나쁜 성품을 다스리며 절합니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을 내려놓으며 절합니다’는 스피커를 통해 훌려 나오는 발원문을 따라 1배씩 절을 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앞으로 매달 셋째주 토요일마다 광장이나 공원 등에서 ‘비움으로 행복 찾기’ 실천운동을 계속한다.

“불상 알면서 드릴 작업” 고의훼손 의혹

법응 스님, 정밀 재조사-책임자 처벌 촉구



▲ 불상의 오른쪽 광배부분이 천공구멍으로 인해 훼손됐다.

낙동강 낙단보 4대강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보물급 고려시대 미애미륵보살좌상이 고의로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환경연대 법응 스님은 10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견된 고려시대 미애미륵보살좌상의 광배부분에 생긴 천공구멍이 “고의로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불상 우측 광배에 지름 10센티미터, 깊이 1미터 20센티미터의 천공구멍과 굵힌 흔적에 대해 “흙이 덮힌 상태에서는 드

릴 수가 없으며, 그 정도 깊이를 뚫을려면, 30분 이상 소요되는데 분명 불상인지 인지했을 것이고, 굵힌 흔적은 굴삭기나 삽 등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응 스님은 불교계 문화재를 전답하는 조계종 문화부에 대해서도 “늑장, 부실 대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총단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자적인 정밀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특히 스님은 “고의적이고 인위적인 불상 훼손인 만큼, 정부와

공사업체의 사과, 책임자 처벌과 정밀 재조사, 추가 매장문화재 조사와 불교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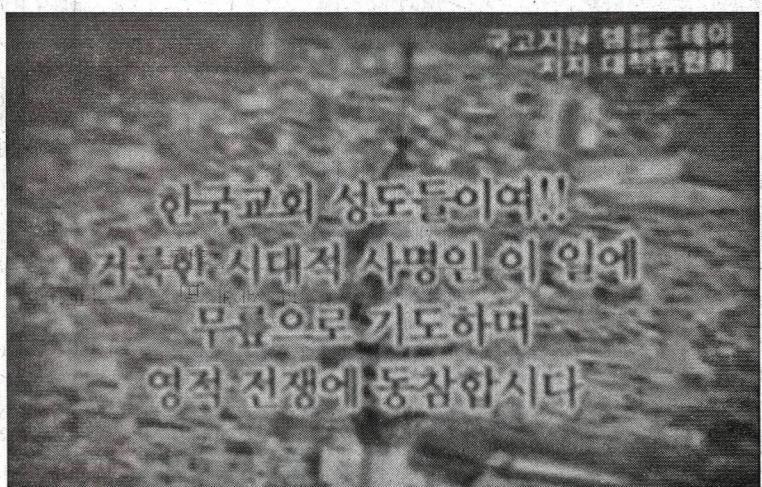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르면, 문화재를 고의로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편 지난 14일 공사중에 발견된 마애보살상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재로, 화강암 암벽에 높이 220cm, 너비 157cm, 얼굴길이 32cm 규모로 새겨졌다. 머리에 삼신형 보관을 쓰고 눈과 입술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등 고려 전기의 지방화된 양식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문화재청은 판단했다.

그러나 마애보살상은 광배 우측 상단에 직경 10cm, 깊이 1m20cm 정도의 구멍과 굵힌 자국이 나 있어 고의적인 훼손의혹이 제기되어, 조계종 문화부는 10월 19일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조계종 문화국장 묵정스님과 문화재보존위원회 임영애 교수, 심주원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을 현지에 보낸바 있다.

기독교총연합회 “템플스테이 건물 환원” 선언

대구불교총연합회 비판 성명준비



영자금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종교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특정 종교 재정지원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등을 과제로 상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템플스테이 사업을 막지 못하면 불교는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므로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거룩한 시대적 사명인 이 일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동참하자”고 범종단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역 불교계는 대구 개신교계의 불교 편파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상을 접한 민족문화수호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정필 스님은 “개신교계가 대놓고 이웃종교에 대한 공격을 일삼는다”며 “영적 전쟁 폭력적 표현에서 극명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은 한 번 심하고 해보자는 것”이라며 “12월 1일 대구 불교계가 결집한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이런 행위를 비판하는 불교도의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만든 국고지원 템플스테이 반대 동영상.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번 팔공산역사 공원조성사업 저지에 이어 최근 국고지원 템플스테이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템플스테이 건물을 국고로 환원해야 한다”는 활동한 주장을 담은 동영상은 제작·배포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은 대구서문고회(담임목사 이상민)는 지난 10월 주일예배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대책위가 제작한 5분 분량의 동영상에서는 “템플스테이는 2002 월드컵 때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초대형 건물을

짓고 예불 등 특정 종교의 포교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템플스테이 운영 현황과 방문객 수를 제시하며 “둔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국고 563억원이 투입돼 참석자는 늘고 있으나 외국인 비율은 10% 도 채 되지 않는다. 분명히 실패한 사업임에도 막대한 국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템플스테이 저지 대책위는 △세금으로 지원받아 전국에 지어진 템플스테이 건물은 국고로 환원시켜야 한다. △계획 중인 국고지원 템플스테이 건설계획은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정부는 185억원 국고지원 템플스테이 운

‘무소유’ 법정스님 기념공간, 지장왕사에 열어

개관 기념 “맑은 세상한마당 나눔잔치’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광주 중흥동 지장왕사에 마련된 법정스님 기념관 개관을 기념해 ‘맑은 세상 한마당 나눔잔치’를 했다.

지장왕사 내 맑고 향기롭게 사

무실 한켠에 마련된 기념관에는 법정스님의 영정과 저서, 생전 자료 등이 전시됐으며, 서울 길상사 주지 덕현스님의 법회도 있었다. 이금지 운영위원(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은 “기념관이라 말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방에 불과하지만 지장왕사와 협력해 시민 모임이나 법회 등 법

정스님의 뜻을 되새기는 사립방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스님이 1994년부터 이끌어온 시민모임으로, 전국 6개 지부가 있으며 광주지부에는 현재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불교종단협, G20 성공기원행사 조계사에서 개최

10월 2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1월 4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G20 성공기원 대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등 불교 주요 종단 지도자들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공일 G20 조직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도선사의 ‘108산 순례기도회’는 10월 24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순례기도회 창립 4주년 기념 영산재와 함께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천주교한민족돕기회(회장 봉두완)는 이달 26일 오후 4시 명동성당 지하 소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G20정상회의’를 주제로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봉헌한다.

개신교계는 지난달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지일, 조용기 목사 등 한국교회 원로들을 비롯한 개신교계,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한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국민기도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들어 각 지방 기독교단체를 주관으로 차례로 성공기원 기도회를 열고 있다.

▲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108배를 올리면서 ‘비움으로 행복 찾기’ 행사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혜경 스님은 “큰 것을 나누는 것보다 작은 것을 나누려는 것이, 채우려는 것보다 비우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작은 출발이지만 참다운 삶을 실현하는 전환된 삶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 캠페인의 발기위원회는 ①몸의 비움, 자기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존재하게 해준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108배를 매월 하기 ②마음의 비움, 나를 제외한 주변과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는 대상 108개를 정해 매

달 한 대상 씩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간직. ③재물의 비움, 감사와 기원의 마음이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매월 10,800 원(1배 100원)을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 등이다. ‘내가 아는 모든 생명을 깊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에게 있는 나쁜 성품을 다스리며 절합니다’ ‘내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심을 내려놓으며 절합니다’는 스피커를 통해 훌려 나오는 발원문을 따라 1배씩 절을 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앞으로 매달 셋째주 토요일마다 광장이나 공원 등에서 ‘비움으로 행복 찾기’ 실천운동을 계속한다.

불교총전

국판/정가 35,000원/불교총지종 출판부

육자대명왕진신(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으로 본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변형국판/정가 7,000원/불교총지종 출판부

총지종의 소의 경전. 반야 사상에 기초하여 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 궁극적 지혜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준다.

대승이취육바라밀경

국판/정가 15,000원/불교총지종 출판부

△임교개종 △교의대감 △옴마니반메훔 △총지종 지표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의 역사 △육합상 해설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칼라 사진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총지종의 전반에 걸친 이해가 가능하다.

정통밀교불교총지종

변형국판/불교총지종 출판부

풍경소리

남을 해치려 한다면



구해줘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까?
“구해준다면 대
자연의 질서를 깨
뜨리는 것이고,
구해주지 않는
다면 한 생명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연의 질서도 깨뜨리지 않고, 생명도 저버리지
않는 길은 택해야지.”
“?”

문윤정(수필가)

용서



나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나무꾼이 도끼자루 만들 나무 하나만 달라 하니 누굴 주면 좋겠나?”

회의 결과 항상 업신여김과 따돌림을 받던 물푸레나무가 도끼자루로 잘려나갔습니다.

도끼자루를 구한 나무꾼은 그 뒤 닥치는 대로 나무를 찍어 넘겼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숲 속에는 대 여섯 그루의 나무만 남았습니다.

후회하며 늙은 참나무가 옆의 오리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푸레나무의 권리를 짓밟지 않았더라면 몇 백 년이라도 평화롭게 서 있었을 텐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따돌림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도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김원각(시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양개선사에게 한스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막 밖에서 뱀이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운 스님(동학사 강주)

이달의 명상

거침없이 살줄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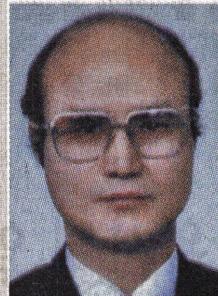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집보장경>



내용참조: “불교총전” 교법편 106p-4



고급원색인쇄 대국전 5색·4색·2색 / 광고기획 / 출판 / 카다로그 / 브로슈어 / 전단 / 명함 / 사보편집

판촉물 일체

**최신형 인쇄기로 고품질의 인쇄물을
기획에서 납품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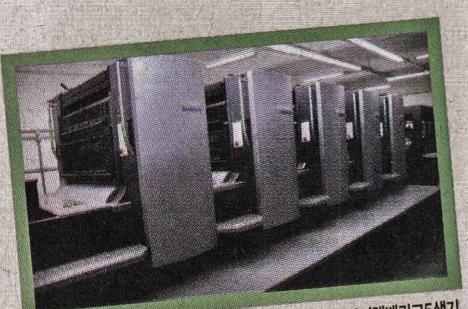
▲ 비현상

(주)윤일문화는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고객의 의도를 소비자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것, 고객과 소비자의 사이를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윤일문화가 하는 일입니다 (주)윤일문화만의 전략입니다.

(주)윤일문화는 언제나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고, 마케팅, 세일즈 프로모션 등의 회사보다 앞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윤일문화는 세계 최고의 인쇄기인 최신형 하이밀베르크 5색기와 4색기를 보유하고 있어 고품질의 인쇄물을 기획에서 납품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과 소비자를 하나로 만드는 전략,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칩니다.

(주)윤일문화는 전국판촉물제조협회와 업무제휴하여 고품격의 판촉물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최신형인쇄기-하이밀베르크5색기

ONE-STOPSYSYTEM



인쇄와 판촉물의 모든 것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el. 02-498-6161T(代) Fax. 02-469-9017

E-mail : orient-kim@hanmail.net Webhard : dongw(ID), 4567(PW)



주식회사 윤일문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47

승단 「총책토론회」 현장을 찾아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법요 등 종단 불사의궤의 개선을 위한 제언”

-11월23일(화) 부산 정각사에서 법경 정사 주제발표-

지난 8월23일 대구 개천사에서 첫모임을 시작한 「총단 교회발전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승단총책 토론회」가 지난 9월 28일 대전 만보사에 이어 이번달 23일(화) 부산 정각사에서 세 번째로 개최된다. 지난 춘기강공회에서 김공희종책토론회 개최를 발의한 법경 정사(밀교연구소 연구원)를 만나 승단 종책토론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11월23일 발표 예정인 「총단의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 의식」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들어본다. (편집자주)

▶ 승단 종책토론회 개최를 발의한 동기는?

-제가 종단에 몸담으면서 행정과 연구,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 자신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새로 정립해야 할 내용, 나아가 종단의 중장기 계획 마련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모든 분들이 가져왔던 생각과 구상을 공식적인 자리 통하여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개진하여 종단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승단 종책토론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인가요?

-처음은 아니구요. 오래전 승단강공회를 통해 주제발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토론과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단의 모든 스승님들이 종단의 9개 분과위원회에 배속되어 각 분야별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 적이 있었는데, 각 위원회의 재량권과 관련에 학계가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연속되지 못하여 중단되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종단발전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승단 강공회를 통해 수차례 말씀드렸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의를 통해 많이 강조를 했었죠. 아마 본격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지난 2001년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종단의 월간잡지 「종지법문」을 통해 제안을 했었는데요, 「교회활성화를 위한 승단세미나 개최와 법장원 연구사업」이란 제목으로 제안을 했었죠. 수련회의 상설화, 가족법회 및 가족수련회 개설, 사원 및 교구 포교예산제 도입, 사원 현실에 맞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종단 청중기념화보집 발간, 종조어록 증보판 발간, 종조 원정사상 연구, 종조 유품전 및 사리친전 순회법회 개최, 종단 수행법의 정립과 정형화, 종단불사의궤 연구 및 개발, 염송의궤법의 이원화, 대중불사 불공



시간의 조정, 제2의 불교총전 편찬, 만다라봉안과 의궤 개발, 사종 호미법의 개발 연구,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의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 그 이후로 9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불사를 하는 데 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단 내부 사정상 여력이 거의 없었죠. 그 이후 지난 2004년에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었는데요, 「제2본산과 기도 종합도량 건립」이었습니다. 그때도 크게 반응이 없었죠. 근간에 몇 년 사이에 관심이 아주 많아졌고,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 「승단 종책토론회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강공회를 통해, 또한 강의시간에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①사원 도량장엄과 시설활용 ②불사법요, 의식 분야 ③종단행사와 교회방편 ④인사 및 도제양성, 인력수급 문제 ⑤교육제도 ⑥교리연구 학술 출판 분야 ⑦포교 및 불공, 상담, 수행 분야 ⑧종현종법과 제도, 분야 ⑨복지사업 분야 ⑩문화 포교 분야 ⑪국제해외불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에는 종단의 각 기구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각 기구와 실무자가 입안(立案)에 앞서 승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좋은 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입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그전과 다르고요. 이 의견들을 정리해서 지난 4월의 춘계강공회에 발표하면서 「승단 종책 토론회」를 발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논의한다는 점이 달립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토론이 가장 큰 차이죠. 그만큼 결과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 「승단 종책토론회의 취지와 방향은?」

-말 그대로, 「종단발전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승단 종책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대안을 표출하여 종단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겠죠. 승단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종단발전방안과 종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 그 이후로 9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불사를 하는 데 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단 내부 사정상 여력이 거의 없었죠. 그 이후 지난 2004년에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었는데요, 「제2본산과 기도 종합도량 건립」이었습니다. 그때도 크게 반응이 없었죠. 근간에 몇 년 사이에 관심이 아주 많아졌고,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 「승단 종책토론회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강공회를 통해, 또한 강의시간에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①사원 도량장엄과 시설활용 ②불사법요, 의식 분야 ③종단행사와 교회방편 ④인사 및 도제양성, 인력수급 문제 ⑤교육제도 ⑥교리연구 학술 출판 분야 ⑦포교 및 불공, 상담, 수행 분야 ⑧종현종법과 제도, 분야 ⑨복지사업 분야 ⑩문화 포교 분야 ⑪국제해외불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에는 종단의 각 기구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각 기구와 실무자가 입안(立案)에 앞서 승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좋은 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입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그전과 다르고요. 이 의견들을 정리해서 지난 4월의 춘계강공회에 발표하면서 「승단 종책 토론회」를 발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논의한다는 점이 달립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토론이 가장 큰 차이죠. 그만큼 결과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 「승단 종책토론회의 취지와 방향은?」

-말 그대로, 「종단발전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승단 종책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대안을 표출하여 종단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겠죠. 승단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종단발전방안과 종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 그 이후로 9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불사를 하는 데 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단 내부 사정상 여력이 거의 없었죠. 그 이후 지난 2004년에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었는데요, 「제2본산과 기도 종합도량 건립」이었습니다. 그때도 크게 반응이 없었죠. 근간에 몇 년 사이에 관심이 아주 많아졌고,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 「승단 종책토론회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강공회를 통해, 또한 강의시간에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①사원 도량장엄과 시설활용 ②불사법요, 의식 분야 ③종단행사와 교회방편 ④인사 및 도제양성, 인력수급 문제 ⑤교육제도 ⑥교리연구 학술 출판 분야 ⑦포교 및 불공, 상담, 수행 분야 ⑧종현종법과 제도, 분야 ⑨복지사업 분야 ⑩문화 포교 분야 ⑪국제해외불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에는 종단의 각 기구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각 기구와 실무자가 입안(立案)에 앞서 승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좋은 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입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그전과 다르고요. 이 의견들을 정리해서 지난 4월의 춘계강공회에 발표하면서 「승단 종책 토론회」를 발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논의한다는 점이 달립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토론이 가장 큰 차이죠. 그만큼 결과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 「승단 종책토론회의 취지와 방향은?」

-말 그대로, 「종단발전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승단 종책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대안을 표출하여 종단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겠죠. 승단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종단발전방안과 종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 「승단 종책토론회의 취지와 방향은?」

-말 그대로, 「종단발전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승단 종책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대안을 표출하여 종단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겠죠. 승단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종단발전방안과 종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그전과 다르고요. 이 의견들을 정리해서 지난 4월의 춘계강공회에 발표하면서 「승단 종책 토론회」를 발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논의한다는 점이 달립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토론이 가장 큰 차이죠. 그만큼 결과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 「승단 종책토론회의 취지와 방향은?」

-말 그대로, 「종단발전과 교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승단 종책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대안을 표출하여 종단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겠죠. 승단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종단발전방안과 종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고려불화대전 전시

총지교도, 11월 13일 문화답사 예정

○ 전시기간
2010년 10월 12일(화) ~
11월 21일(일).

○ 전시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
시실.

○ 전시유물
혜허(慧虛)필 〈수월관음
도〉 등 108점(일본 소재
고려불화 27점, 미국·유럽
소재 고려불화 15점, 국내
점, 중국·일본 불화 20점, 조선 전기 불화 5점, 고
려시대 불상과 공예품 22점)

○ 불화전시 의의(최광식 박물관장)
1. “고려불화는 국내에는 10여 점밖에 없으며
100점 이상이 일본에 남아 있다.”

2. “이번 특별전은 60여 점의 고려불화를 한꺼번
에 만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자리로 박물관으
로서도 최고의 보람.”

3. “G20 정상들을 비롯, 세계에 우리 문화의 진
수를 보여줄 귀중한 기회.”

○ 고려불화 특징
쉽세하고 단아한 형태, 원색을 주조로 한 화려한
색채와 금니(金泥), 유려하면서도 힘 있는 선묘 등을
특징으로 한 고려 불화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독
보적인 미의 세계를 창조한 것으로 평가.

○ 관심 불화
1. 수월 관월도(일본 도쿄 선소사(淺草寺) 소장)
‘불방을 관음’이라는 별칭으로 유명.

은은한 녹색의 물방울 모양 광배 속에 서 있는
관음보살을 그렸으며, 한 손을 들어 벼들가지를 늘어뜨린 관음보살의 자태는 늘씬하고 우아해 고려
미인을 연상.

2. 아미타 삼존도(삼성미술관 리움의 소장)

아미타불이 보살들을 거느리고 극락에 왕생할 사
람을 맞이하려 오는 ‘내영도(來迎圖)’ 형식의 고려
불화로서 아미타불의 머리에서 뻗어나온 빛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끓은 왕생자를 감싸면서 극락
왕생의 길로 곧 인도될 것임을 암시.

3. 수월관음도(일본 단진진자(談山神社) 소장)

여러 수월관음도 중에서도 화려한 금니와 고운
색채가 잘 살아 있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난을 만
났을 때 관음보살을 부르기만 해도 구제받을 수 있
다는 ‘법화경’의 ‘관음보살보문품’의 내용을 표현.

○ 주의 사항

1. 불화의 일부 작품이 기간별로 전시되어 아쉽
게 못 볼 수 있음.

2. 사진 촬영 금지

○ 방문 예정

1. 문화 답사 : 11월 13일 (토)

1) 총지사 오전 10시 출발

2) 개별로 오실 교도는 중앙박물관 매표소 앞
10:40분까지 도착 바랍니다.

3) 교통 : 지하철 4호선 이촌역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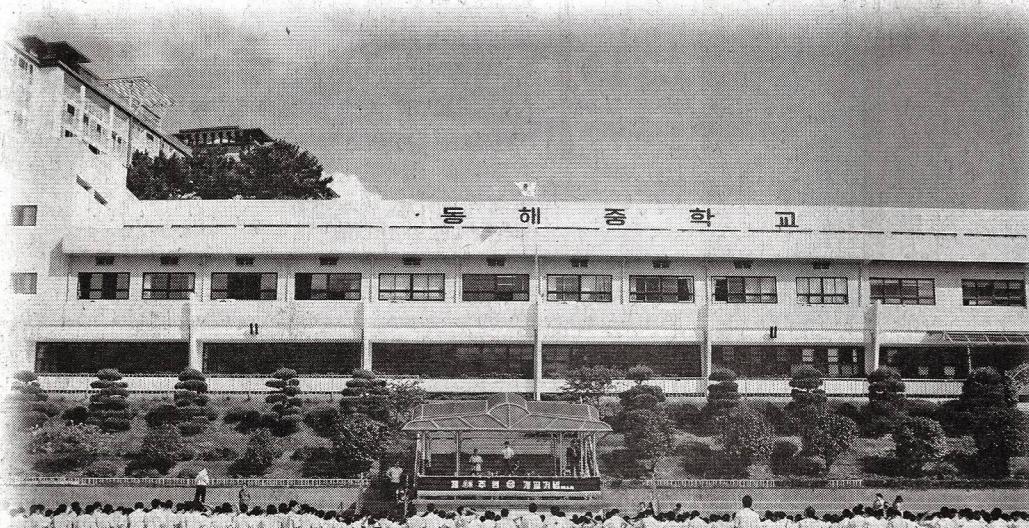
4) 11시부터 안내 설명 있습니다.

5) 박종한 교무에게 신청 바랍니다.

2. 관람 후 식사 (회비: 10,000원)

3.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성 실 정
학 목 보 리 수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2011학년도 수능 시험생 고득점 기원 기도

〈발원문〉

**유주에 충만 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며,
만류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부처님이시여.
자비의 문을 열고 구원의 실상을 밝혀 주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이시여.
오늘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자극하신 가호력에 힘입어
일심 정진하으며 합장 발원 하옵나니
자비광명 비추시어 친곡하게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진언행자 000군(양)은 2011학년도 수능시험에 이르는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불보살님의 자극하신 은덕에 감사드리오며,
000군(양)은 진실한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보살의 구도정신을
본받아 용맹정진으로 학업에 열중하여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품에 얹겨 실력을 연마해 온
진언행자 000군(양)에게 크나큰 기자력을 내리시고,
부처님의 자극하신 위신력으로 이 땅에 생을 받은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광명에 힘입어 우수한 성적으로 가문을 빛낼은 물론,
사회와 세계를 법성광명으로 빛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자비 청정 법신이시여.
오늘이 발원이 부처님의 크신 가호력 속에서 성취 되어 졌음을 믿사오며,
다시 원하옵나니 진언행자 000군(양)에게 사내는 건강하고,
육은은 청정하며, 고난과 장애를 보게 될 때 바라밀 무장애의 위덕이 빛나게 하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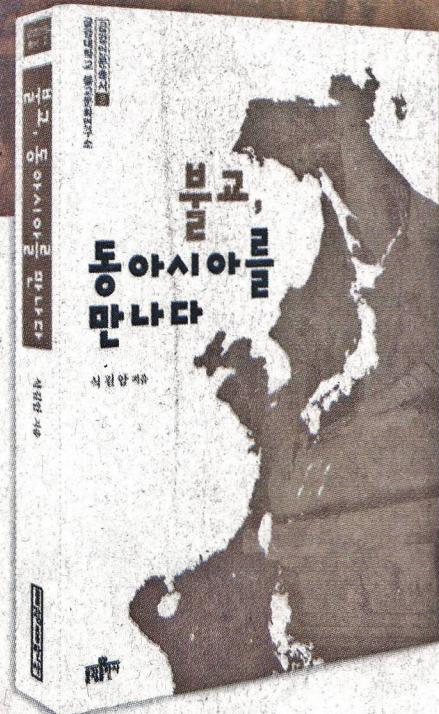
**온갖 대립과 학체의 벽이 가로 놓일지라도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대지혜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심을 우족하여 모든 성종의 가호 있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내려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위의하옵나이다.
귀명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귀명 금강전고 자성신 아축불
귀명 공덕장엄 취신 보생불
귀명 수용지혜신 아미타불
귀명 작변화신 불공성취불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불교 총지종은 교도분들이 항상 기도한 자녀와 2011학년도
모든 수험생들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원(願)하는 대학
으로 진학 하기를 서원합니다.**

**불교 총지종 전국 사원 스승 일동
불교 총지종 전국 신정회 간부 및 회원 일동
불교 총지종 전국 사원 교도 일동**

동아시아의 참된 모습을 찾아나서는 시. 간. 여. 행.



불교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확산된
동아시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진실

- 실크로드를 지나간 것은 비단뿐이다?
- 위경(危境)은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 원효 대사는 우리 땅에 오신 부처님이었다?
- 절에서는 기도만 해야 한다?
- 스님들이 구족계를 어기면서까지 노동을 하는 이유는?
- 요즘은 순임금만 출동한 왕이었을까?
- 맹자가 뱃삯을 입에 물고 저승으로 가는 이유는?
- 동아시아에서 서양과 같은 인쇄혁명이 안 일어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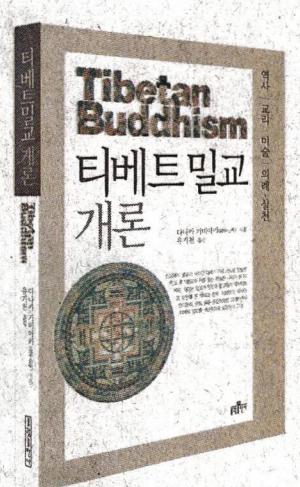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석길암 지음
272면 / 신국판 / 값 15,000원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3층 Tel.(02)420-3200 Fax.(02)420-3400 www.bulkwang.or.kr

후기불교의 뒤틀리는 유일한 나라 티베트 티베트 밀교 개론

저자는 밀교가 인도의 불교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맥락과 함께 티베트의
역사와 원시문화, 풍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티베트 밀교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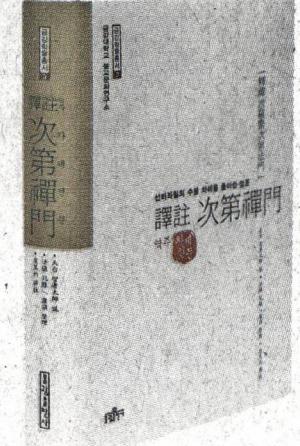


다나카 기미야끼 저술 유기현 옮김
신국판 / 352면 / 값 15,000원

선비라밀의 수행 차례를 풀이한 법문 역주 차제선문

譯註 次第禪門

釋迦波羅蜜次第法門
천태 대사 지의가 설법한 선정론의 보고
『석선비라밀차제법문』의 최초 원역본
간화선과 염불선,
위빠사나 등에도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행 지침서



· 天台 智者大師 說·法慎 記錄·灌頂 整理
· 崔其杓 譯註
신국판 (양장) / 436면 / 값 35,000원